

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234.05	1056.34
(-244.65)	(-59.84)
금리 (미국 3년)	환율 (원/달러)
3.477	1514.80
(+0.107)	(+13.5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4월 3일 금요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꺾이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마감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5478.70)보다 244.65포인트(4.47%) 내린 5234.05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16.18)보다 59.84포인트(5.36%) 하락한 1056.34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트럼프 “2~3주간 이란 극도 강타 韓·日 등 호르무즈 스스로 지켜라”

이스라엘과 협의 여부 거론안해 “협의 없으면 발전소 강력 타격” 국제유가 전날 하락분 반납 ‘급등’

백악관의 자국민 설득 연설이 2일(한국시간) 오전 전파를 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의 주문을 했다. 전 세계가 지켜본 가운데, 전쟁 상대국 이란에 대해 일단 강경 입장으로 표면적 선회를 택했다. <관련기사 2·3면> 트럼프는 이날 중·하순쯤이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동맹 전선에 가담 중인 이스라엘과의 협의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백악관·미군이 임의로 내건 시간표일 수도 있다. 그는 “향후 2~3주간 이란을 상대로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퍼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협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발전소 등 목표물을 매우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

지국 내 유가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불만을 달래려는 언급도 했다. 그는 “분쟁이 사라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이다. 그리 되면 기름값이 급락하고 주가는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가 폭등 관련해서는 이란 탓으로 돌렸다.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인 선박들을 이란이 공격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뤄 온 진전 덕분에, 오늘 밤 본인은 군사적 목표에 매우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

O)와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동산 원유 및 가스 수입에 의존 중인 국가들을 향해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거나 스스로 해협을 지키길”을 제안했다. 또 “뒤늦게라도 용기를 내라. 그 해협에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백악관발 강경 발언에 전날의 하락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크게 뛰었다. 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미사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6.29%(6.30달러) 오른 배럴당 106.42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브렌트유도 상승률 6.68%를 보이며 107.92달러를 찍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올해 메모리가격 두배 이상 상승 예고 반도체 기업 호황 기대감

빅테크 기업, HBM 등 수요 확대 ‘원가상승’ 완제품 시장, 가격압박

메모리 가격이 세 자릿수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호황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완제품 시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빠르게 전가되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2일 미국 투자 금융 회사 씨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데이터 수요에 힘입어 올해 D램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171%, 낸드플래시 가격은 12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낸드플래시 기반의 기업용 SSD 저장장치 수요는 일시적 호황이 아닌 글로벌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DDR5 모듈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 가격 급등은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반면 완제품 판매 기업에는 원가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출시 후 출고가를 인상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회사는 지난해 출시된 시장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 Z 폴드7, 갤럭시 Z 플립7, 갤럭시 S25엣지 등 주요 플래그십 모델의 출고가를 인상을 했다. 모델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용량인 512GB와 1TB 모델을 중심으로 약 10만원~20만원 가량 가격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조정을 두고 제조사들이 더 이상 원가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기능 고도화로 고사양 메모리와 대용량 저장장치 탑재 비중이 커지면서 일부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가격 부담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노트북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북6’를 출시했는데, 전작 대비 최대 32% 바싼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그림 2026프로 AI 모델은 약 310만 원대로 전작 대비 약 19% 상승한 가격에 출시됐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



석유류 가격 9.9% ↑... 물가 2.2% 상승

데이터처,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농산물 하락... 오름세 일부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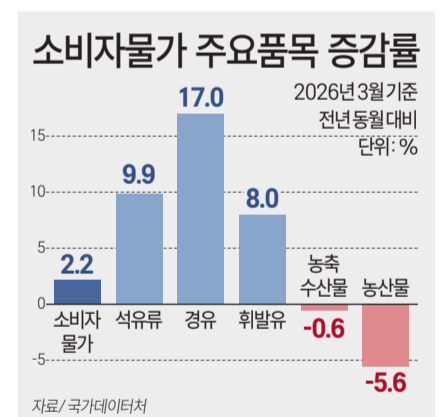
중동전쟁발 국내 물가 여파가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9% 넘게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 등 석유류의 상승 폭은 3년5개월 만의 최고를 찍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가 +9.9%를 기록하면서 물가 전반을 0.39%포인트(p) 밀어 올렸다.

석유류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래 4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그나마 지난 3월13일 도입된 휘발유·경유 등 대상의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상승폭이 일부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휘발유가 8.0%, 경유가 17.0%, 등유가 10.5% 치솟았다. 경유는 2022년 12월(+21.9%)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휘발유는 작년 1월(+9.2%) 이후 최고 폭이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휘발유 수요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물품 등에 쓰이므로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6% 하락했는데, 이중 농산물이 5.6%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25%p 낮춘 것.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4% 올랐다. 공공서비스(1.0%)는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으나 외식(2.8%)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3.2%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스피 4.47%p ‘뚝’... 글로벌 금융시장 ‘초토화’

삼전 5.91%, 하이닉스 7.05% ↓ 외국인 11거래일 간 23조 순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이란을 향해 던진 말 폭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초토화됐다.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7%(244.65포인트) 내린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1056.34까지 밀려났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호령 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19일 이후 코스피시장에서 11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이 기간

에 외국인 팔아치운 주식은 23조 원어치에 달한다.

코스피에선 전체 시가총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하락 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각각 5.91%, 7.05% 하락하며 17만8400원, 83만 원으로 밀려났다.

일본 닛케이 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셱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 중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여파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

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입국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급등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시간 이날 오전 10시53분 브렌트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약 3.9% 뚝 배럴당 105.13달러를 나타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103.35달러로 전장보다 3.2%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4원 오른 1519.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를 마쳐며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예결위원,李정부 추경에 “선거용 돈풀기 추경”
▲김영록,함중연횡·포퓰리즘 ‘맹비난’...“내로남불” 재저격 /사진 뉴시스

▲국힘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제명으로 못 덮어...검경에 수사 의뢰해야”
▲이준석 “‘칸론 출장’ 정원오, 혐오 프레임 숨지 말아야”

▲구윤철, ‘달려 강제 매각’ 유포·가담자 고발... “가짜뉴스 용납 못해”
▲‘대학·취업 특혜’ 김병기 차남, 피의자 조사 3시간20분 만에 종료

“최악의 공급망 전제 대응… 원유수급 등 상황 악화 없을 것”

중동대응 본부 브리핑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정점 판단
비축유 스왑 대체물량 5000만배럴
호주 가스수출제한조치 철저 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3주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가 봉쇄돼 있는만큼 원유수급 등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이미 정점에 도달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최악의 공급망 차질 상황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국내 수급 통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 발발 두 달째를 맞은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 중 트럼프의 대국민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에 대해 집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전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동전쟁 관련 국내 석유·가스 가격 동향, 주요 업종 영향 및 대응 등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부

해졌고, 자원안보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심각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원유가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원유 상황이 악화된다면 호르무즈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에서 대체물량을 열심히 구해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비서실장이 나가서 한것처럼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원유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전이 있더라도 원유 등 수급 상황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트럼프가 전쟁 끝내도 산업부가 맞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종전 선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통항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틀어진

공급망 원상 복구되는 시점은 한 달보다 더 걸릴 것”이라며 “나프타도 그렇고 원유 생산시설 파괴된 거 고려해야 한다. 상당부분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하며, 공급망 회복되는 시간까지 상당히 걸려서 지금 위기 대응 체계는 종전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축유 스왑(SWAP)과 관련해 4월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물량은 5000만배럴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양 실장은 “4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체 물량은 현재로서는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축유 스왑 당일 계약 물량 200만 배럴은 당일 방출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가 내수 부족을 이유로 검토 중인 가스 수출 제한 조치(ADGSM)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에서 수출 제한 조치 절차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그 이야기 외교부 통해 사전에 알려졌다”며 “호주 중동부 지역 가스가 3분기에 22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내 영향에 대해

서는 “차질 물량 22만 톤이면 크지 않다. 가스공사 계약 물량에서는 3~4만 톤(약 0.5일분)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다”며, 특히 “호주 쪽에서 가스공사와의 기존 장기 계약 물량에 큰 영향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군사행동을 2~3주 이내 끝낼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00.24달러, WTI는 98.77달러로 각각 전날 대비 0.9%, 1.3% 하락했고, 가스 가격도 종류별로 2~8% 정도 떨어졌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차 최고가격 시행(3월27일) 이후 휘발유(1913.22원)는 5.2%, 경유(1901.66원)는 4.9% 상승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의 약품·조선·섬유·철강 등 주요 업종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수급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靑 “국민 보호·에너지 수송로 확보 방안 모색”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련 발언 주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에 신중히 대응”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미 정부의 이란 전쟁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전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이 서울역 대학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뉴스1

하에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함께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비판하며 “우리가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이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KIEP “종전 이후에도 유가하락 제한적”

공급 다변화 등 정책 대응 강조

중동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전쟁이 계속될 시에는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순수입국의 물가와 경상수지에 상당한 압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펴낸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 분석을 내놨다.

KIEP는 중동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수입 비용 증가와 나프타·LNG 수급 차질에 직접 노출될 만큼, 선제적 공급다변화 및 비상수급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전쟁이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기 종전·휴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분쟁 장기화 ▲에너지 시설 타격·확전 등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3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배럴당 63달러)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희망적인 조기 종전 시나리오에서도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전쟁 이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원유 생산량이 10%가량 감소하면서, 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86% 상승한 배럴당 117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에너지 시설 타격을 상정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유가는 전쟁 전보다 176% 오른 배럴당 174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유가 급등이 예상된다”며 “이 전망은 하한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충격은 이보다도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나프타 수입 중 중동 비중은 약 34.4%에 달하고, 카타르 시설 파괴 시 복구에만 3~5년이 소요될 수 있어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은 봉쇄 장기화 수준에 근접해 있는 만큼 정책 대응의 시급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당정, 석화분야 등 수출 피해기업 지원 확대

대체시장 발굴·전기료 완화 등 논의

당정이 2일 중동발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석유화학기업 부담 완화와 수출 악화를 겪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중소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원활한 나프타 수급을 지원해 석유화학기업의 부담을 덜고,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가기로 했다.

또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와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감시체계와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

산기반 마련과 요소수입선 다변화 등 핵심 전략자원 공급망도 보강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지속과 해상 물류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해외지사화,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자금 문제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과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산업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metro

이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료 요구

>> 1면 ‘트럼프, 2~3주간…’서 계속

한편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도 전해졌다. 특히 미달러화로 거래해 온 것에서 벗어나,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적재 용량은 통상 200만 배럴이다. 통행료로 원화 기준 약 30억 원을 걷겠다는 얘기다.

이란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방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대를 초토화했다고 주장한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연설 직후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방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 내린 5234.0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8.4원 오른 1519.7원으로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세종=김연세기자

고유가·고환율 덮쳤다... 물가 불안에 내수 회복 '급제동'

⚡ 중동 리스크, 한국 흔들다

③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3월 소비자물가 2.2%로 반등 석유류 급등에 환율 부담 겹쳐 생산·투자 늘었지만 소비는 멈춰 체감경기 더딘 가운데 고유가 충격 환은, 성장·물가 사이 급리 딜레마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한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를 흔들고 있다. 2% 안팎에서 안정을 찾던 소비자물가는 3월 다시 2.2%로 올라섰고, 내수는 여전히 약해 한국은행은 성장을 보자니 금리를 내리야 하고 물가를 보자니 쉽게 내리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한은은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당시 한은은 물가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되고, 성장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봤지만,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와 이에 따른 물가·성장·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2% 물가 '흔들'... 유가·환율 이중고

2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2월 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2% 물가 안정 흐름이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3월 9.9% 급등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을 키웠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오



2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름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2월 1.7% 상승에서 3월 -0.6%로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석유류 가격 오름폭을 상당 부분 제약한 것으로 봤다. 근원물가는 2.2%로 2월 2.3%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생활물가는 2.3%로 2월 1.8%보다 확대돼 체감 부담은 다시 커졌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를 꽤 때 석유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유 가격 상승에 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며 "여기에 수입물가까지 환율로 따져보면 이중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가 자체도 부담인데 고환율까지 겹치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 상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 생산은 버텼지만 소비는 멈춰

문제는 성장 쪽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늘어 2020년 6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28.2% 급증했고 설비투자는 13.5%, 건설투자는 19.5% 늘었다. 하지만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생산과 투자는 버텼지만 내수의 체감 회복은 아직 약하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 지표는 2월 말 발발한 중동 사태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 수치다. 지금의 경기 흐름은 '회복확신'이라기보다 반도체와 생산이 버티는 가운데 내수 체력은 여전히 약한 국면이란 평가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연간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는데 유가가 10달러만 올라도 1년에 100억 달러를 원유 수입에 더 지불해야 한다"며 "수입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 서고 있는데 장기 사이클상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사태로 그 회복이 꺾일 수 있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다"고 진단했다.

◆ 깊어지는 한은의 딜레마

이 지점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진다. 물가

가 다시 오르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반대로 고유가 충격이 소비와 성장 회복을 짓누르면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번 3월 물가는 2월보다 상승했고, 석유류 가격 급등이 확인된 만큼 한은으로서는 물가 안정 경로를 쉽게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한은은 4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겠지만,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도 비용 측면에서 완화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유가 충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서도 농축수산물과 정부 대책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허 교수는 "지금 당장은 금리를 올릴 국면은 아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2%대 초반이고 앞으로 올라갈 게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이전에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2% 가운데 IT 수출을 제외하면 1.4% 정도로 봤고, 내수만으로 보면 잠재보다도 덜 성장하는 한 해였는데 여기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성장률에는 하방 압력,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더해졌다"며 "생각보다 올해 경제가 체감상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직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3월 물가가 다시 2.2%로 올라서고, 석유류 가격 급등과 고환율 부담이 확인된 가운데 내수는 여전히 약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동발 공급 충격이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를 늦추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

한은 역시 "향후 물가 경로에서 중동 상황 전개와 유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고 경제집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1면 '반도체 기업... '서 계속

양창호 "전략물자 수송할 필수선박 200척으로 늘려야"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해운협회 간담회에서 대응책 제시 중동발 위기 해상 물류망 불안 확대 석유·가스 수송 차질 땀 韓 산업 타격 국적선 적취율 하락, 수송역량 보강

"중동 전쟁 장기화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불태 해운 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양기자협회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관련해 해운 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초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등 전 세계가 배 한 척이 멈추면 세계는 멈춘다'는 말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무역의 약 90%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 부회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됐다"며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이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열린 해양기자협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번 사태가 우리 산업과 우리 국민에 직결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화물이 어떻게 잘 수송될 수 있을지 우리 수송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전략상선대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양 부회장은 "전쟁 등 유사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전략상선대를 육성해야 한다. 현재 88척 규모의 국가 필수선박

제도를 확대 개편, 200척으로 늘려야 한다"며 "평시 물동량의 40%를 전략물자 수송선으로 지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화물 수송 능력의 법제화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핵심 에너지의 적취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LNG 적취율은 34.5%로 전년(38.2%) 대비 3.7% 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입 물량인 8685만 9000톤 가운데 국적 선사로 실어

나른 물량은 2995만 4000톤에 불과했다. LNG 적취율은 2020년 52.8%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는 "에너지 화물 수송 능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원유·LNG에 대한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이고 선대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양 부회장은 "통행료가 고착화되면 유가 상승으로 직결된다"면서도 "통행료를 내고 이란 영해를 경유해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선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역에 억류된 선박에는 한국 선박과 한국인 승선자가 남아 있다. 양 부회장은 "현재 해협에 갇혀 있는 8개사 10척의 선박 대부분이 중소선사"라며 "한국인 선원들이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정부와 지원을 위해 협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제품값도 수시로 변동 전자상가 '시가' 거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고 시세에 따라 변동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등 일부 유통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급등 여파로 제품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등 사실상 '시가' 처럼 거래되는 모습도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유통 구조 속에서 동일 사양 제품이라도 재고 시기나 부품 구성, 유통 경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자제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시가에 대해 "동일 사양 제품 간 성능 차이는 존재하더라도 통상 1~2% 수준으로 크지 않다"며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신제품뿐 아니라 기존 제품까지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흔들리지 않는 사업기반 확보... ESS 통합 솔루션 역량 중요”

구광모 LG 대표, 美 ‘버텍’ 방문 AI 시대 배터리 사업 질적성장 목표 북미 거점 5곳 ESS 생산으로 전환 연이어 브라질 찾아 신흥 시장 공략

구광모 (주)LG 대표가 미국과 브라질을 잇달아 찾으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뒷받침할 인프라인 ‘에너지’와 신흥 시장인 ‘글로벌 사우스’를 축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했다.

2일 LG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스트보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시스템 통합(SI) 전문 자회사 버텍을 찾았다.

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ESS 배터리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고객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통합 솔루션 역량을 높여 시장을 선도하는 압도적 지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주)LG 대표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ESS SI 전문 자회사 버텍에서 ESS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파우치형 배터리셀을 살펴보고 있다. /LG

이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미래 배터리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국면에서 사업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 역량이 중요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LG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제조 경쟁력에 소프트웨어 기반 운영·관리 역

량을 더해 AI 시대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위한 배터리 사업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SS 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확산, 산업 전동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는 ESS가 단순 저장기능을 넘어 전력

부하 최적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지난해 약 300GWh(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750GWh 규모로 2.5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G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빠르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ESS 주류로 부상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기에 도입했으며, 북미 수요 급증에 맞춰 현지 생산 거점 5곳을 ESS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북미에서 ESS 배터리를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버텍과의 시너지도 강화하고 있다. 버텍은 ESS 사업의 핵심 역량인 설계, 설치,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기반 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시스템 통합 역량을 갖추고 있다. LG의 ESS를 선택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배터리 공급부터 설치,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구 대표는 미국 버텍 일정을 소화한 후 브라질로 이동해 LG전자 마나우스 생산법인과 현지 유통 매장을 찾아 중남미 시장 전략을 논의했다.

브라질은 인구 약 2억 1000만 명의 세계 7위 인구 대국이자, 중남미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으로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로 손꼽힌다. 구 대표는 지난해 2월 인도, 6월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번 브라질을 방문하며 합계 인구 20억 명에 달하는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가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구축 중인 냉장고 신공장은 높은 수입 규제와 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중남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기지로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시장 특성에 맞춰 브라질 내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물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엔비디아, 맞춤형 AI에 3조 투자... HBM 시장 다변화

엔비디아, 자사 생태계에 마벨 흡수 칩 공급처 다변화, 메모리 수요 확대 SK하이닉스·삼성전자에 ‘긍정적’

엔비디아가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마벨 테크놀로지에 약 3조원을 투자하면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도 적지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단순한 해외 기업 간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용 맞춤형 반도체 시장 확대 신호로 해석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성장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벨에 20억달러(약 3조 원)를 투자하고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엔비디아의 NV링크 퓨전(NVLink Fusion) 기술과 마벨의 맞춤형 AI칩(XPU·ASIC)을 결합해 고객 맞춤형 AI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엔비디아,마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I.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를 단순한 투자 발표보다 AI 서버용 맞춤형 칩 시장이 한 단계 더 커지는 신호로 보고 있다. 최근 메타,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칩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역시 이를 경쟁 관계로 보기보다 자사 생태계 안으로 흡수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AI 서버용 칩 종류가 엔비디아 G

PU뿐 아니라 마벨 기반 맞춤형 칩까지 확대되더라도, 해당 서버에 탑재되는 HBM 수요는 오히려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GPU든 맞춤형 AI칩이든 고성능 AI 서버에는 대용량 고속 메모리가 필수”라며 “칩 공급처가 다변화될수록 메모리 수요 기반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 주요 공급망 내 HBM 선두 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시장 점유율 60% 인판을 유지하고 있으며,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 신규 패키징 공장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 HBM 공급 협의를 주요 고객사와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향후 5년간 HBM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에도 영향은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최근 HBM4 공급을 본격화하며 SK하이닉스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고객사에 HBM4를 출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AI 메모리 시장 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엔비디아의 마벨 투자로 AI용 맞춤형 칩 시장이 확대될 경우,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사업에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HBM뿐 아니

라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사업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어 AI칩 시장 확대 효과가 메모리 외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 시장 전체로 보면 이번 투자는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저변이 넓어진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HBM 경쟁은 진행 중이지만, 맞춤형 AI칩 확대가 시장 규모를 한층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선두 공급망을 기반으로 우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4 공급 확대를 통해 추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AI 서버 시장 확대 국면에서 늘어나는 메모리 수요를 어느 기업이 선점하느냐가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AI칩 시장이 GPU 중심에서 맞춤형 칩까지 확대될수록 HBM 수요 기반도 함께 넓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늘어나는 수요를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HD현대 조선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박차

HD현대중공업·HD한국조선해양 주주환원 강화, 수익성 개선 흐름

HD현대 주요 조선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강화와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밸류업 정책에 맞춰 제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주요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시장평가와 수익성, 주주환원 지표의 동반 개선을 제시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 2024년 4.5배에서 지난해 5.7배로 상승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8.8%

를 기록했다. 주주환원율은 40%로 기준 목표(30% 이상)를 웃돌았다. 지난해 이익배당금은 5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6% 증가했고, 배당성향은 40.1%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93%를 유지했다. 분기 배당 기준일도 이사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HD한국조선해양도 주요 지표 전반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주주환원율은 142%로 목표치(30% 이상)를 크게 웃돌았고, 배당성향은 40.1%를 기록했다. ROE는 16.3%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PBR은 지난 2024년 1.5배에서 지난해 2.2배로 상승했고, 주가수익률은 지난달 27

일 기준 2024년 말 대비 61%를 나타냈다. 지주사 HD현대는 배당 확대를 중심으로 주주환원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 이익배당금은 28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고, 배당성향은 29.4%를 기록했다.

각사가 지난 2024년 말 내놓은 밸류업 목표가 이번 공시에서 본격적인 성과 지표로 나타난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배당성향 30% 이상, ROE 15% 이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93%를 제시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ROE 12%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HD현대는 오는 2027년까지 ROE 8~10%와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87%를 중장기 기준으로 제시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스페이스X, 6월 상장 추진... 750억弗 조달

기업가치 1조7500억弗 목표

일본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이자 윌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가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2일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 비공개 제출은 재무정보 공개 전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이후 공모 규모와 희망 공모가가 확정된다.

스페이스X는 규제당국과의 의를 거쳐 주식 규모와 공모기를 공개할 예정이며,

상장 시점은 올해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가치는 1조7500억달러(약 2648조 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xAI와 결합해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조달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 최대 750억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세운 290억달러 기록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CNBC도 역대 최대 IPO 대비 약 3배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생성형 AI를 활용에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갤럭시 S26 사면 웨어러블 또는 TV 또는 소형가전

하나 더!

Galaxy S26 Ultra



+ 갤럭시 버즈3 PRO 화이트 또는 삼성 무빙스타일 32형 또는 삼성 UHD TV 75형

삼성 초이스 스페셜 이상 24개월 유지시 가전구독 초이스 스페셜 이상 36개월 유지시 가전구독 초이스 스페셜 이상 60개월 유지 및 인터넷 예천스 이상 & 지니TV 예천스 이상 3년 약정 갱신/신규 가입시

[KT 삼성초이스] 삼성 초이스 요금제 가입 후 삼성 초이스 디바이스를 24개월 또는 36개월 일부 가입하고 요금제 유지할 경우 매월 디바이스 할인 제공/초이스 스페셜 이상 요금제 24개월 유지시 버즈3 Pro 화이트 고객에게 0원에 제공/프로모션 기간 내 신규 가입 시 제공(~2026.4.30일까지)/단, 일부 수수료 5.9% 고객 부담 별도/요금제 변경·정지·해지시 잔여할부금 정산 청구/반납 기입 불가

[KT 가전구독 초이스] 가전구독 초이스 스페셜/프리미엄 요금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제 가입 후 KT 가전구독 상품을 별도 가입 시 할인 혜택 제공/초이스 스페셜 이상 요금제 36개월 유지시 무빙스타일 32형(80.1cm) 고객에게 0원에 제공/초이스 스페셜 이상 요금제 60개월 유지 및 인터넷 예천스 이상 & 지니TV 예천스 이상 3년 약정 갱신/신규 가입시 삼성 UHD TV 75형(189.3cm) 고객에게 0원에 제공/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미성년자, 외국인, 영구장애, 법인 등 가입 불가)/프로모션 기간 내 신규 가입 시 제공(~2026.4.30일까지)/요금제 변경·정지·해지시 잔여할부금 정산 청구/사제한 사항은 kt.com 참조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국채 발행없이 26조 투입... 李, '경제 희생 골든타임' 강조

대통령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민생 2.8조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 2.6조 등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련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희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23번 등장했다. 그만큼 중동 전쟁의 여파를 엄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원 ▲민생안정 대책 2조8000억원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 투자지원 9조5000억원 등 분야별 구체적인 추경 편성 내역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대해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

에 필요한 자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300개소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취업·창업 지원 ‘K-뉴딜 아카데미’ 신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 피해 최소화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용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 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석유 화학산업의 나프타 수급과 석유비축 지원을 늘려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해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면서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총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한-프 140년 우정 넘어 전략적 조율로”

이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 맞아 일간지 르 피가로 기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오늘날 양국의 협력은 보다 심화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쓴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을 찾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민 방한에 맞춰 투고한 글에서 이 대

통령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140년간의 한-프랑스 관계에 대해 “외교, 산업, 기술,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면서 명동성당에 남아 있는 지식과 신앙 교류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파리 활동, 프랑스군의 6·25 참전을 거쳐 프랑스 테제베(TGV) 기술에 기반을 둔 한국의 KTX 고속철도망, 원자력 협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양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라면서 “한국의 지적·정치적 전통은 장 자크 루소와 몽테스키외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왔고, 자유와 권력 분립에 대한 이들의 사유

는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 형성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 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환경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심화돼야 한다면서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관여,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언급하며 이를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양 국가의 힘은 과거의 모습을 넘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 양자회담장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의 모습을 선택하는 데,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해서는 “문화강국 프랑스가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한국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국민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7년 취임 후 처음이며,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민 방문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은 첫 번째 유럽 정상이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3일 정상회담을 갖고,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유력 후보’ 김관영 제명에 전북 선거관 요동... 무소속 출마 고심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金 제명 당내 경선, 안호영·이원택 2파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전북지사 후보였던 김관영 현 도지사가 ‘돈봉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되면서 선거관이 예상 밖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기존 3파전이었던 민주당 경선은 안호영·이원택 의원 2파전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구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

변인은 전날(1일) 국회에서 심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금품 제공 파악이 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강 대변인은 “사안을 접수하고 당대표가 즉시 감찰 지시를 했고, 윤리감찰단은 당사자로부터 소명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문답 결

과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 지사는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제명되면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당내 경선은 안호영·이원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안호영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고 경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조선산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완주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오는 8~10일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전에서 김 지사와 전날 통화했다면서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도정 안정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남긴 성과와 경험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북 도정의 자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 연대를 바탕으로 도정의 안정성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저는 흔들림 없이 도정에 집중할 것이다.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적었다. /서예진 기자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기업대출 한달새 5조 증가... '투자 저울질' 대기자금도 급증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 766조
주담대 중심 전월대비 1364억 ↓
요구불예금 15조 늘어난 700조
'중동 리스크' 투자심리 위축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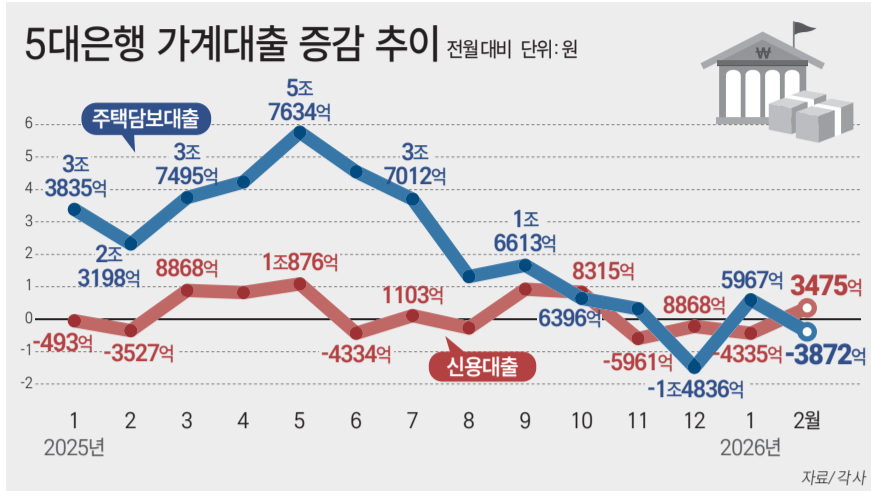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기업대출은 한 달 새 5조원 넘게 증가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 7290억원으로 한달 전(765조8655억원)과 비교해 1364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4563억원, 1월 -1조8650, 2월 523억원으로 소폭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 주담대 줄고 기업대출 급증

가계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3339억원으로 전월(610조7211억원) 대비 3872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주담대는 ▲1월 -1조 4836



억 ▲2월 +5967억원 ▲3월 -3872억원 등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월 -4762억 원 ▲2월 +3조 931억 원 ▲3월 1조 7992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감소세다.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6595억원으로 한달 전(104조4954억원)과 비교해 3475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빠르게 늘었다. 5대 은행의 대·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59조7737억원으로 전월(854조3288억원) 대비 5조4449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강조하며 자금을 가계에서 기업으로 유도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증시 관망세 속 대기자금 급증

한편 시장 자금은 요구불예금으로 유입되며 대기성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30조1583억원으로 전월(32조2334억원)

보다 소폭 감소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MMDA포함) 잔액은 699조9081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477억원 늘었다. 지난 2022년 6월(725조 6808억원)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 2월 33조 3225억원에 이어 두 달 새 50조원 가까이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자금으로, 투자 대기자금 성격을 띤다. 최근 예·적금 만기 자금이 재예치 대신 단기 대기자금으로 묶이며 투자 시점을 저울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자금 집행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요구불예금 증가는 투자 수요가 줄었다기보다 투자시점을 저울질하는 대기 자금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카드 '한 인도네시아 큐알(QR) 결제 서비스' 관련 이미지. /우리카드

우리카드 인니서 QR결제 서비스 환전 없이 앱 간편결제

우리카드가 국내 카드사 최초로 '한·인도네시아 큐알(QR) 결제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금융결제원망을 활용해 구축한 국가간 QR 결제 서비스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우리카드 고객은 환전 없이, 기존 우리카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현지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 3200만개 이상의 큐리스(QRIS)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전용 상품인 '카드의정석2 ExK 체크'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카드는 인도네시아에서 QR 결제와 현금자동인출기(ATM) 서비스를 모두 지원한다.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도 AT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카드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수수료·환율 혜택을 제공한다. QR 결제 서비스 이용 시 국제브랜드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TM 인출 서비스는 해외 인출 수수료를 건당 500원 정액제로 적용하고, 3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KB국민은행 해외결제 서비스 국가 인도네시아 전역 확대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국가간 QR결제서비스인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 대상 국가를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간 QR결제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국내 금융사와 해외 지급결제기관을 연결해 각국의 금융 앱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서도 QR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발리,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전역의 약 32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카드 복제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없이 KB스타뱅킹 앱 하나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KB국민은행은 국내 최초로 금융결제원의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국가QR결제망인 QRIS와 직접 연계해 이중 환전 없이 현지 통화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결제 편의성을 강화했다. (안상미 기자)

'10억 로또' 아크로드 서초, 청약 경쟁률 1099대 1

30가구 모집에 3만명 넘게 몰려
서울 민간분양 중 역대 최고 기록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 서초'의 청약 경쟁률이 1099대 1로 서울 민간분양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30가구 모집에 무려 3만명 넘게 몰렸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30가구 모집에 총 3만297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99대 1로 기존 서울 청약 경쟁률 역대 최고치인 '디에이치 에펠루이(평균 1025대 1)'를 웃돌았다. 특히 전용면적 59㎡A타입은 26가구 모집에 2만9535건이 접수돼 1135대 1을 기록했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초동 서초산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



아크로드 서초 투시도. /DL이앤씨

다. 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56가구에 불과하다. 타입도 전용 59㎡만 나왔다.

아크로드 서초는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6가구 모집에 총 1만9533건의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751대 1에 달했다. 특히 4가구 모

집에 7589건이 접수된 전용 59㎡A타입(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8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800만원선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가 18억6490만원이다. 인근에서 지난 2021년 입주한 '서초그랑자이'의 전용 59㎡가 올해 1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0년 입주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전용 59㎡가 지난달 32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뛰어난 입지에 더해 아크로라는 브랜드의 상징성이 강남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며 "독보적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카드 '주유 특화' 리터당 150원 혜택

4종 발급시 연회비 100% 캐시백
추첨통해 K-패스 환급금 30% 추가

KB국민카드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객 부담 증가에 대응해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유류비와 대중교통비 등 필수 지출 영역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먼저 주유 특화카드 이용 시 리터당 추가 50원을 더해 최대 15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 할인 혜택이 담긴 카드 4종을 발급하는 신규 및 휴면 고객에게는 연회비 100% 캐시백을 제공한다.

내달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KB국민 K-패스카드' 연계 교통비 추가 환급도 지원한다. 해당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패스 환급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KB국민 K-패스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주유 및 대중교통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가운데 총 2111명을 추첨해 주유지원금 ▲100만원(1명) ▲50만원(10명) ▲5만원(100명) ▲5000원(2000명)을 제공

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부의 교통·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응한 고객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KB페이(Pay) 메인 화면을 통해 정부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요일별 운행 가능 차량번호 정보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최근 대외 환경 변화로 유류비와 교통비에 대한 고객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 중심으로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의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와 합



서울 광화문 KB국민카드 사옥 전경. /KB국민카드

계 소상공인에게 온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현대차그룹, 볼더·셀토스·G90 등 美 전략모델 대거 공개

뉴욕 국제 오토쇼

현대차, 중형 픽업트럭 시장 공략
기아, SUV·EV·PBV 라인업 강화
제네시스, 럭셔리 브랜드 차별화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가 미국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지 전략 모델을 공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중형 픽업트럭을 세계 최초 공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으며 기아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모델을, 제네시스는 럭셔리 고성능 브랜드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특히 현지 수요가 높은 SUV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현지 점유율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볼더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볼더는 '극



현대차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6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가해 현지 전략모델을 선보였다. (좌)현대차 '볼더' 콘셉트. (우)기아 셀토스 EX. /현대차그룹

한의 모험을 추구할 자유'를 디자인 요소로 구현한 콘셉트카다. 모델명은 아웃도어의 성지로 알려진 콜로라도주의 도시 이름에서 따왔다. 현대차 미국 디자인센터 주도로 탄생한 볼더는 일반 고객뿐 아니라 오프로드 마니아 등 다양한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볼더는 현대차가 미국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바디 온 프레임 차량은 미국 문화의 근간이며, 현대차는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는 북미 시장에서 판매를 견인할 핵심 모델로 신형 셀토스와 소형 전기차 EV3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 21대 차량을 전시한 기아는 SUV·전기차·목적기반차량(PBV)을 아우르는 라인업으로 북미 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차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6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가해 현지 전략모델을 선보였다. (좌)현대차 '볼더' 콘셉트. (우)기아 셀토스 EX. /현대차그룹

신형 셀토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또 기아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PBV 모델 'PV5 WAV' 콘셉트를 공개하며 상용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차별화를 위해 고성능과 맞춤형 디자인을 강조했다. 이번 오토쇼에서 'GV70 그레이트 파이트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G90 왕백 콘셉트와 하이퍼카 모델

등을 함께 전시했다. 또 제네시스는 부스에 '마그마 존' 및 '마그마 레이싱 존'을 마련해 고성능 프로그램 '제네시스 마그마'의 비전을 선보였다. 마그마 프로그램의 첫 양산 모델인 'GV60 마그마'를 전시하고, 레이싱 시뮬레이터를 배치해 관람객이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허태수 회장 "AI 스타트업과 신사업 개척"

(GS그룹)

허 회장, AI 스타트업 기술 협력 논의
단순 투자 넘어 핵심 사업현장 접촉

GS그룹이 투자한 국내외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과 그룹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스타트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로봇공학 기술을 정유·발전·건설·물류 등 핵심 사업 현장에 접목해 신사업 동력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GS그룹은 2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허태수 회장과 사장단, 계열사 실무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이 투자한 AI 기술 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와 '디지털전환(DX)'이다. GS는 그룹의 벤처 투자 거점인 GS벤처스와 GS벤처스를 통해 발굴한 AI 기술 스타트업들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2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그룹 사장단 및 현장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S그룹

을 한자리에 모아 미래 사업 경쟁력을 점검했다.

행사에는 총 17개 국내외 포트폴리오사 대표와 지사장이 참석해 자사의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AMESA, Graphon AI, Articul8 등 GS벤처스가 투자한 11개사와 트릴리

온랩스, 에스디티(SDT), 에이디로보틱스 등 GS벤처스가 투자한 6개사가 AI 인프라와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이날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직접 소개하며 벤처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허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기존 비즈니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도전하고 있고 그 도전 속에 신사업 기회도 존재한다"며 "GS그룹은 스타트업 투자와 협업을 통해 함께 신사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GS그룹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룹 전반의 DX 프로젝트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할 계획이다. 유망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고도화함으로써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車업계, '충전 할인·저금리 할부' 프로모션

중동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 타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유가 상승과 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를 타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시장 소비 흐름이 전기차로 이동하면서 '충전 요금 인하'에 나선다. 현대차·기아·제네시스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초고속 충전망 '이-피트'(E-pit) 요금을 1당 199원에 제공하는 '웰컴 199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kWh 당 199원의 요금은 환경부의 공식 급속 충전 요금(100kW 이상 기준)인 1kWh 당 347.2원과 비교해 40% 이상 저렴하다.

한국GM은 쉐보레 구매 고객에게 유류비와 저금리 할부를 지원한다. 소형 SUV인 '2026년형 트렉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에게 36개월 할부 기준 연 3.5%

이율 혜택과 함께 5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60개월 할부는 연 4.0% 이율에 30만원의 현금 할인을 제공하고, 2025년형 트렉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에게는 생산 시점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6년형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에게는 36개월 할부 기준 연 4.0% 이율에 50만원의 유류비 지원을 제공한다. 픽업트럭 '시에라' 구매 시에는 500만원의 현금 할인과 함께 36개월 기준 연 4.5%, 60개월 기준 연 5.0% 이율로 구매하는 혜택을 주고, 생산 시점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르노코리아는 주력 모델인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구매 고객에게 유류비 50만원을 특별 지원하고,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총 100만원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난해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는 할부 원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6개월 무이자 혜택을 주는 '마이 웨이' 할부를 새롭게 운영한다. /양성운 기자

태광산업, 정인철·이부의 공동대표 체제... 사업 다각화 방침

소비재·헬스케어 B2C 영역 확장

태광산업이 정인철, 이부의 공동대표 이사 체제 전환 이후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 다각화 전략을 공유했다.

정인철, 이부의 태광산업 공동대표이사는 2일 주주서한을 통해 "현재 기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성장 전략 추진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 명의 대표이사가 이를 각각 전담해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보다 직접

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IR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광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 기회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최근 애경산업 인수를 마무리하며 K-뷰티를 중심으로 한 B2C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위해 동성 제약 인수도 진행 중이다.

태광산업은 "케이조선 인수를 위해 투자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매각주관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 활용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現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 호텔을 인수했으며 신규 부지 매입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연계한 사업 기회도 함께 검토 중이다.

태광산업은 "신사업은 개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기준 아래 추진되고 있다"며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장치산업 기반 B2B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소비재 및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B2C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개발 등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 투자를 통해 사업 기반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글로벌 점유율 1위

금액 기준 18.9%... 7년 연속 선두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가 2019년부터 7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2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44Hz 이상) 시장에서 금액 기준 18.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44Hz ↑) 출하량은 310만대로 2024년 대비 약 15%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한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 ▲초고해상도를 구현한 6K '오디세이 G

8' ▲뛰어난 색재현력과 240Hz 주사율 4K QD-OLED '오디세이 OLED G8' ▲업계 최고 수준의 주사율을 기록한 500Hz OLED '오디세이 G6' 등 세계 최고 기술을 적용한 혁신 제품들로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올해도 새로운 모델과 서비스를 대거 확대하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게이머들과 파트너십을 늘려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과 생태계 조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레이다·대드론까지’... 첨단 전자전으로 세계시장 정조준

혁신기업 돋보기

넥스윌 서원 기 대표

디지털 RF 융합기술로 차별화
천궁2 주요 구성품 납품 확대
국내 유일 AESA 시험장비 보유
“핵심기술 모두 내재화 경쟁력 충분”
무인기 탑재 재머 개발, 제품화 눈앞

현대 전자전에서 중요한 군용 레이다와 드론용 재머(jammer)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융합한 기술까지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K-국방 강소 혁신기업’이었다.

국방 분야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는 다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외 메이저 방산업체들을 본격 노크하고 있다.

대전 유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넥스윌(NEXTWILL)은 국방 분야에서 안티드론 등 차세대 레이다, 전자전 탐지·재머 등을 개발하는 방산·통신분야 강소기업이다.

서원기 대표가 2005년 창업한 넥스윌



서원기 넥스윌 대표가 예이사 레이더 시험장비를 설명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은 전체 70여 명의 임직원 가운데 65%가 R&D를 담당하고 매년 매출액의 7%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으며 기술력을 끊임없이 쌓아올리고 있다. 포항공대 출신인 서 대표는 같은 대학에서 박사까지 마쳤다.

서 대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RF(무선주파수) 융합기술은 5G 통신, 국방 레이다 등에서 쓰이는 미래 기술로, 특히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SWcPC(소형·경량·저전력·저비용) 요구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창립 이후 관련 기술을 아웃소싱 없이 모두 내재화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넥스윌이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은 군용 레이다 핵심 부품인 송수신 모듈, 제어모듈, 시험장비를 비롯해 군용 전자전 장비인 능동형 재머, 반응형 재머 등이다. 군사용 뿐만 아니라 민수

용인 5G·6G ORAN 통신장비 등도 제조하고 있다.

군용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넥스윌이 R&D를 통해 완성한 레이다 핵심 구성품은 중거리 지대공 첨단 유도무기인 ‘천궁2’에도 들어간다.

서 대표는 “현대전에서 레이다와 재머는 국력과도 직결된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부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드론은 중요한 공격·방어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초기에는 통신이나 전파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전자전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전은 신호탐지, 재머 등을 통한 공격, 방해전파를 활용한 교란, 재밍에 대응하는 항재밍을 활용한 보호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넥스윌은 최근 소형·경량 외장형 재머를 드론에 탑재해 공중에서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대드론 장비’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현재 소형 무인기 탑재용 재머, 근거리 고해상도 드론 탐지 레이다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서 대표는 “최근 들어 드론이나 무인

기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진행하고 있는 무인기 탑재 재머 개발은 우리가 최하다. 곧 제품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자전, 통신, 레이다 3개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매우 드문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넥스윌이다.

게다가 넥스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이사(AESA) 레이다 시험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관련 매출은 지난해에만 95억원에 이르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전체 매출이 240억원이었다. 70여 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올린 성과다.

서 대표는 “핵심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대전·세종·충남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계적인 교육 및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평화를 지키는 기술 방패”라는 비전 아래 K-방산의 선두주자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美 제련소 ‘크루서블’ 시동... 핵심광물 공급망 승부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미국 통합 제련소 찾아 비전 공유
현지 사업 본격화하며 조직 통합 강조
2027년 착공·2029년 완공 목표 제시

고려아연이 미국 내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 경영진은 현지 임직원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를 갖고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반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려아연은 1일(현지시간)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크루서블 링크’ 및 계열사 출범을 기념하는 ‘데이윈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요한 순간: 하나의 팀, 하나의 방향’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지 제련소 및 광산 임직원의 합류를 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앞줄 가운데)이 미국 현지 직원들과 함께 제련소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있다.

/고려아연

영하고 프로젝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박기원 사장, 이승호 사장, 김기준 본부장, 권인대 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과 테네시주 부지사 및 지역 정치·행정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이 미국 제

련소 사업을 전담하는 ‘크루서블 사업부’를 신설하고 최윤범 회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핵심 사업이다. 회사는 기존 니어스타 USA 제련소 인수 완료로 기반으로 현지 법인을 출범시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윤범 회장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의 지난 52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최신 기술과 경험을 집약해 세계 최고의 핵심광물 처리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첨단 기술의 가장 근간에는 ‘사람’과 ‘진심’이 있다”며 조직 통합과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기존 해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제련소 숙련 인력을 그대로 승계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본사 핵심 인력과의 시

너지를 통해 초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 고려아연은 제련과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만큼 제련 부산물 약 62만 톤을 재활용해 게르마늄, 갈륨, 인듐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고, 보유 광산을 통해 원료 수급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부터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올해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총 13종의 비철금속과 반도체용 황산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이번 투자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양성은 기자 ysw@

기정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신설

중소벤처 AX전환 지원 전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인공지능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

기정원은 산업 전반의 AI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기능을 통합·강화한 AI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혁신추진단은 기존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업무를 넘어 AI 기반의 R&D 사업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AI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1본부, 1센터 규모로 운영됐었지만 신설한 추진단은 전문성 중심의 ‘2본부 1센터’ 체제로 운영한다.

기정원 내 분산됐던 AI 기술개발 및 AI 기능을 통합해 AI 대전환이라는 고유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중소벤처기업이 AI·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정원이 새로운 시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정원은 2002년 설립 이후 지난 25년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R&D), 스마트제조혁신 및 지역특화사업 등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밑받침 지원해 온 전문기관이다.

/김승호 기자

원가급등 플라스틱용기 직권조사 나선다

중기부, 식품·음료 상위 15곳 점검
납품대금연동제 체결·이행실태 확인
쪼개기 계약·탈법행위 등 집중조사

정부가 이달부터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대해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식료품 제조사(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사(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커피 및 식음료 등)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상위 각 5개 회사 총 15곳이 대상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수탁·위탁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월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폭증했지만 대기업보다 거래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 109.6% 상승했다.

반면 나프타, 에틸렌 같은 합성수지 원료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는 과잉 공급 구조, 제품 차별화 부족 등의 특성이 있어 연동제 취약업종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장 중소제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원가 부담이 한계에 도달하

면서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를 시작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를 포함해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유도 등의 탈법 행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피해 예상 업종에 추가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롤러’ 논란, LCK 변수로… “리그 공정성·신뢰 유지 필요”

젠지 e스포츠 소속 ‘롤러’ 박재혁 부친 자산관리·실무 담당 과정서 명의신탁 발생… 세금 납부 ‘해명’ 논란 지속에 LCK 사무국 조사 착수

개막 초반부터 선수 개인 이슈가 불거졌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젠지 e스포츠 소속 ‘롤러’ 박재혁을 둘러싼 세금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LCK 2연패를 노리던 젠지로는 시즌 초반 변수와 마주한 상황이다.

2월 e스포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 속 인물 정보가 박재혁의 이력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사안은 해외 소득 신고 및 자산 관리 과정에서의 세무 처리 문제로 번지며 이슈가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재혁 측은 2018년부터 약 3년간 부친에게 지급한 매니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며, 부친 명의로 진행된 주식 거래 역시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젠지 ‘롤러’ 박재혁.

/라이엇 게임즈 플리커

반면 과세 당국은 “프로게이머는 통상 소속 게임단이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구조로 별도의 매니저 비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식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세심판원 역시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재혁의 에이전시 ‘슈퍼전트’는 “해당 자금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 자산이며 자산 관리 과

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친이 자산 관리와 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형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세금 역시 납부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LCK 사무국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사무국은 1일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내부 검토 및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보

다 면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제3자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의 임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무국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착수를 우선 진행한다”며 “향후 조사 결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젠지 측의 별도 판단이 없는 한 박재혁은 예정된 경기 일정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수 개인 이슈가 팀 분위기와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혁은 젠지의 전신인 삼성 갤럭시 시절부터 활약하며 2017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이끈 핵심 선수다. 이후 중국 리그를 거쳐 2025시즌을 앞두고 복귀해 팀의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까지도 팀의 성과에 기여해왔다.

논란 이후 박재혁은 1일 개인 SNS를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사실은 없다”며 “자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으며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 리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안은 선수 개인 이슈로 시작됐지만 리그 운영 측면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LCK는 최근 중계권 다변화와 글로벌 리그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선수 개인 이슈가 리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e스포츠는 선수 중심 구조가 강한 만큼 개인 이슈가 주목 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e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e스포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리그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LG U+ - LG전자, 6G 시대 통신기술 연구

네트워크 효율성·보안 강화 중심
시맨틱 통신·PQC 기술 등 협력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시맨틱 통신과 양자내성암호(PQC) 등 차세대 통신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6G 환경에서 요구되는 네트워크 효율성과 보안 강화를 중심으로 선형 기술 확보와 표준화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맨틱 통신은 AI를 활용해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로, 전송 효율을 높이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PQC는 양자컴퓨터 환경에서 기존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왼쪽)와 제영호 LG전자 C&M표준연구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암호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사업자 관점에서 시맨틱 통신의 요구사항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안 요구사항과 표준화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기술 구조와 알고리즘 연구, 단말·플랫폼 적용 방안을 담당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6G 시대에는 AI와 통신의 결합이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시맨틱 통신과 PQC 등 미래 AI 기반 통신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SK AX, AI 에이전트로 시스템 장애 예방

‘엑스젠틱와이어 NPO’ 서비스

SK AX는 에이전틱 AI 기반의 인프라 운영 서비스 ‘엑스젠틱와이어(AXgenticWire) NPO’를 통해 시스템 장애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AI 에이전트가 문제 상황을 사전에 탐지하고 분석, 판단, 조치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로그, 메트릭, 이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원인 분석과 영향 범위 판단, 복구 및 자원 재할당 등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AI 클라우드 환경에서 증가하는 운영 복잡성과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반영됐다. GPU 자원 관리와 워크로

드 변동성까지 포함해 인프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제조 분야에서는 설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금융에서는 중단 없는 전산 운영을 지원하며, 공공 분야에서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운영 전 과정을 자동화된 흐름으로 관리하고, 운영자는 자연어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다. AI 스튜디오, MCP 빌더 등 도구를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이전틱 AI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는 구축 방식에 따라 설치형, BPO, 통합 운영(ITO) 등으로 제공되며, 산업별 요구에 맞춘 운영 컨설팅도 포함된다. /김서현 기자

엔씨 ‘아이온2’ 시즌3

콘텐츠 로드맵 공개

엔씨가 MMORPG ‘아이온2’의 시즌3 콘텐츠 로드맵을 공개하고 신규 콘텐츠와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아이온2’ 시즌3에서는 원정 ‘환영의 회랑’, ‘푸른섬의 섬’, 초월 ‘붉은 연심의 거울’, 성역 ‘무스펠의 성배’ 등 다양한 PvE 던전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신규 원정 ‘환영의 회랑’에는 보스 몬스터 ‘일그러진 분열체 나트하라’가 등장한다. 기존 ‘어비스 중층’을 대체하는 신규 필드가 추가되며 ‘악몽’ 콘텐츠 보스도 리뉴얼한다. /최빛나 기자

틱톡, K-콘텐츠에 750억 투자 단행

‘K-임팩트 서밋 2026’ 열어

틱톡이 2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K-임팩트 서밋 2026’을 개최하고, 국내 창작자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5000만 달러(약 75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콘텐츠 운영을 총괄하는 정재훈 틱톡 코리아 운영 총괄이 발표한 투자의 첫 번째 축은 새로운 흐름을 직접 만들어내는 ‘웨이브 메이커’로서의 크리에이터 지원이다. 틱톡은 창작자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투자의 두 번째 축은 크리에이터가 만

든 물결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앰플리파이어’ 역할의 전문 파트너십 강화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FIFA 공식 우선 파트너로서 ‘2026 북중미월드컵’ 비하인드 콘텐츠를 독점 공개하고 전용 콘텐츠를 라이브 송출한다. 국내에서는 KBO·K리그 파트너십을 통해 리그 공식 콘텐츠 및 팬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보다 다양한 스포츠 리그 및 협회와의 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 분야에서는 기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PI 연동을 통해 콘텐츠 유통을 고도화해, 이용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뉴스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법제화
팀 창단·리그 개최 등 추진

게임산업 발전법과 맞물린 e스포츠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스포츠 산업을 직접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정연욱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 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발전법 체계와 연계해 지역 기반 e스포츠 산업 확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실무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았다. 지역 e스포츠팀 육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사업 등이 세부 근거 부족으



로 예산 집행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다.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는 e스포츠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

시설 조성 ▲단체 설립 및 운영 ▲팀 창단 및 운영 ▲대회 개최 ▲청소년 대상 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한다.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팀·리그·교육을 포함한 종합 정책으로 확장했다.

정연욱 의원(사진)은 “이번 법안이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어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상장사 실적 개선됐지만... 반도체주 빼면 '속 빈 성장'

상장사 2025 결산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 6.08% 증가
삼전·하이닉스 제외 매출 -0.46%
코스닥 영업이익 17.18% 늘었지만
기업 44%가 손실 기록하며 적자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성장폭은 크게 둔화된다. 결국 이번 실적 개선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주식시장 내 반도체 업종의 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에도 적자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한계가 이어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2025사업연도 결산실적'에 따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면 코스피 상장사 626곳(금융업 등 제외)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82조7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0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44조7882억원으로 25.39%, 순이익은 189조3910억원으로

33.57% 늘어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7.94%, 6.14%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매출 증가율은 4.45%에 그치

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도 각각 10.76%, 15.64%로 낮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매출 비중은 약 14%에 달한다. 시장 전체 실적이 개선됐지만, 체감 경기와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다.

특히 개별 기준으로 보면 두 기업을 제외할 때, 매출(-0.46%)과 영업이익(-3.69%)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수익 성장세에도 흑자 기업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626개사 중 471곳(75.24%)이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년(77.48%)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은 매출 13.80%, 순이익 89.50% 증가한 반면 건설·비금속 등 일부 업종은 부진을 이어갔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

다. 코스닥 상장사 1268곳(금융업 등 제외)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7조1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0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조7124억원으로 17.18%, 순이익은 5조2952억원으로 51.42% 늘어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3.94%, 1.78%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적자 기업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1268개사 중 558곳(44.01%)이 손실을 기록하며, 상장사 10곳 중 4곳 이상이 적자를 이어갔다. 흑자 기업은 710곳(55.99%)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 741곳(58.44%) 대비 줄어들었다. 절대적인 비중에서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113.10%로 전년 104.40% 대비 8.70%포인트(p)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F4 “중동 변수에도 흔들림 제한적”... 외인 4.4조 순매수

경제부총리·한은·금융위·금감원
시장상황점검회의 열고 대응 점검
WGBI 편입 맞물려 자금 유입 확대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점검한 결과, 국제시장 변동성은 완화 흐름을 보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와 미국·이란 협상 상황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관련 발언이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가 효과를 내며 채권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

는 모습이다. 5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 등 조치가 금리 변동폭 축소에 기여하며 국제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국제지수(WGBI) 편입이 지난 1일 공식 개시된 이후 외국인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국고채를 4조4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유입이 이어지며 채권 수급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는 WGBI 추종 자금 특성상 외국인 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채권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통해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제도 개선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외환시장 안정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내시장복귀계획(RIA) 도입 이후 투자자 반응이 이어지며 해외



(왼쪽부터)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석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투자자금 환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3일 금융기관을 방문해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 부문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달러 강제 매각' 관련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 매주·매월 자동 투자 금 적립 서비스 선택

최소 1g 단위부터 투자 가능

NH투자증권은 토스뱅크와 제휴해 KRX 금현물 시장 연계 '금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KRX 금현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 최초의 적립식 금 모으기 서비스다.

토스뱅크 앱 내 '목돈굴리기' 서비스에서 금 현물 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 금 모으기 서비스는 '정기 매수' 기능을 통해 매월 또는 매주 정해진 금액만큼 금을 자동으로 모을 수 있고, 최소 1g 단위부터 투자가 가능해 소액으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일반 금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와 달리 매매 차익에 따른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장기 적립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금리 변동과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동시에 목돈 투자보다 소액으로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 성향이 강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금융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고, 해당 고객층이 두텁게 형성된 토스뱅크를 파트너사로 선정해 첫 서비스를 선보였다. 향후 고객 반응을 토대로 서비스 대상과 제공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토스뱅크도 KRX 금현물 시장에서 개인고객 기준 약 25%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NH투자증권을 파트너로 선택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금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허정윤 기자

청년 회계사 사망 계기... 한공회, '장시간 노동' 손본다

3분기 내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 시즌 과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회계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업계 전반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회관에서 중·대형 회계법인 20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감사 시즌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

속 청년 회계사 사망 이후 장시간 노동과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회계법인의 노동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재량근로제와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감사 시즌 중 작고한 젊은 회계사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회계 투명성도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량근로제와 포괄임금제가 실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법적 관행과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다음 감사 시즌 이전인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회칙에 따라 회원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단순한 법규 준수 독려를 넘어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사 현장 실무자와 청년 회계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감사업무수임 경쟁심화에 따른 감사시간 보수적 산정과 이

/허정윤 기자

100g당 가격 한눈에...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7일 시행

산업부, 6개월간 시범운영·계도기간
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 우선 적용
가격 비교 용이... 물가 안정 기여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도 용량 대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상품의 전체 판매 가격과 함께 100g, 100ml 등 단위 기준에 따른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와 30g 4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다를 때, 각각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실제로 더 저렴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쿠팡 전경.



네이버배송 포스터

/네이버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여기에는 라면, 즉석밥, 두부, 우유, 커피 등 가공식품 76개,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 표시단위는 10g, 100g, 10ml, 매, m 등으로 표기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

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 업체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 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사과값 잡는다... 농식품부, 생산 10% 확대

수급관리 체계 정비

정부가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생산 불안정 대응으로, '착과량' (작물에 맺힌 열매의 양) 끌어올리기 등을 통한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계약재배 확대와 가격지표 개편 등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과 소비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과 산업은 재배면적은 유지되고 있지만 개화기 냉해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생산 목표를 전년도의 44만8000톤(t) 대비 10% 이상 늘린 49만3000t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정 착과량 확보 ▲연중 생육관리 강화 ▲수급관리 체계 개선 ▲중소과 소비 확대 ▲추진체계 구

축(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등 5개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개화량 대비 최종 착과량 목표를 기존 6~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한다. 다만 과다 결실에 따른 '해거리' (격년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줄어드는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과원 면적 중 절반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절반만 착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저장성이 높은 후지 품종을 중심으로 착과량을 확대하고, 수세(나무자람새) 관리와 영양 관리 등 생육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할한다는 계획이다. 주산지인 경북·경남·충북·전북에는 생산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정부·농진청·농협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지원반을 통해 밀착형 기술지도와 농자재 지원을 실시한다.

또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 시설을 조기 보급하고 약제·영양제 공급을 사전에 점검한다. 현장지원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갯벌도 '탄소자산'... 관리 5개년 계획 발표

해수부, 5개 유형의 관리구역 지정
사업 타당성·목표달성 평가제도 도입

해양수산부가 2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 및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갯벌 관리·복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블루카본이란 바다 생태계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대기 중의 탄소를 빨아들여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를 받는다.

우선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해양수산부가 2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해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이력이 있거나 갯골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복원사업의 실효성도 높인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 타당성과 목

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갯벌 활용 측면에서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수 갯벌을 보유한 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관광·교육 콘텐츠를 육성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도 지속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충남 서천에는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해 연구·실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갯벌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통합 공개한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 /농협중앙회

"농촌 인력난... 농기계은행이 해답"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 정기총회
강호동 농협회장, 사업 확대 주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전국조합장과 만나 농기계은행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2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6년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농기계은행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농기계은행사업이란 농협에서 농기

계를 구입해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말 기준 616개 농협(지역농협 597, 지역축협 14, 품목조합 5)이 참여하고 있다. 농작업대행 면적이 총 171만 헥타르(ha)에 달하는 등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 현장의 위기상황을 공유했다. 또 농기계은행 사업의 운영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옆 동네서도 가능

권익위, 사각지대 해소 권고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

국 지방정부와 377개 공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를 위해 자주 찾는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요금 감면 기준이 없던 일부 지방정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적유관단체의 부설주차장에도 감면 혜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교통 거점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장거리 이동 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같은 광역 지방정부(시·도)에 거주하는 다자녀가 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시·군·구)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기 노후보장 연금 '푸른씨앗' 문턱 낮춘다

근로복지공단, 7월부터 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목일을 앞두고 '씨

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문턱을 낮췄다. /세종=한용수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서울시교육청, 1대1 진학상담 상시화... 사교육 의존 낮춘다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발표 365일·야간 방문·화상 상담 가능 온라인 플랫폼 '센 진학 나침반'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정보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 컨설팅이 필요 없는 밀착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365일 1대1 진학상담을 확대하고, 평일 야간 방문 상담과 화상 상담도 늘려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인다. 진로탐색부터 성적관리, 과목 선택, 대학 진학 정보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도 강화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용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현장 불안을 줄이고, 학부모의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1대1 맞춤형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용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365일 1대1 상담 컨설팅

서울시교육청은 고입 단계부터 공교육 진학 지원을 강화한다.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고입 특별상담'과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운영해 고등학교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을 지원한다.

대입 단계에서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통해 365일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평일 야간 방문 상담과 화상 상담을 확대하고, 대상과 시기에 맞춘 '집중상담주간'을 연간 4회 늘린다.

현직 교사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진

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은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부터 대입 진학까지 통합 상담을 맡는다.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MAP 지원단' 104명은 학교 신청에 따라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현직 교사 114명으로 운영 중인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을 통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1대1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센(SEN)진학 나침반'도 운영한다.

◆ 학교급 전환기부터 진로 설계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급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유·초·연계 '이음교육' 자료를 개발해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를 돕고, 초·중·고교급 전환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학습의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4개 창의예술교육센터, AI교육센터 등에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진학 탐색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과학·수학·AI, 예술·체육, 직업계고 분야는 물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주배경학생,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사의 진로·진학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와 네트워크 강화한다. 초등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고교 담임 교사 진학지도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와 교과연구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높은 진학지도 자료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서울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진로, 학업 설계, 진학까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성과 따라 예산 차등... 지역대학 지원 개편

교육부, '라이즈' → '앵커'로 재편 예산 나눠먹기 등 기존 한계 개선 지역서 배우고 정착 생태계 조성

교육부가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와 학생 체감도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인 라이즈(RISE)를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로 재편한다.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과 학생 중심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취지를 반영해 명칭을 재정립했다.

구분	예산액
지방정부 자율 인재육성	8500억원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4000억원
매칭인센티브	1000억원
5급3특 초광역 인재육성 (중앙 주도)	1200억원
5급3특 초광역 인재육성 (중앙 주도)	800억원
특성화 지방대학	3722억원
첨단분야·창업 인재양성	2060억원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5급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막고, 지역 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라며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서

는 초광역 단위 인재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약 4000억원 규모 예산을 성과 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해 올해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의 예산 나눠먹기 여부 △지방정부와 대학 간 소통 수준 △학생·인재에 대한 고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17개 지방정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5급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이 협력해 인재양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유대학' 모형을 도입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급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도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런 멘토링, 정서·예체능까지 통합 지원

서울시, 올케어·독서·동행 3종 신설

서울시가 취약계층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인 '서울런 멘토링'을 올해 학습·정서·예체능을 아우르는 '통합 성장 지원 체계'로 대폭 확대해 본격 가동했다.

서울시는 '올케어·독서·동행' 멘토링 3종을 신설하고, 학부모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지난달 '서울런 멘토링' 운영을 재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런 멘토링이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런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매칭해 학습 지도와 진로·입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1521명의 대학생 멘토단이 선발돼 3월부터 순차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시는 하반기에도 멘토 300명을 추가 선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입시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1대1 오프라인 논술 멘토링'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50명)로 확대한다. 2027학년도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고3·N수생)을 대상으로 서울런 온라인 논술 강의와 연계한 대학생 멘토의 단기 집중 멘토링을 주 1회, 2시간씩 2개월간 제공하며, 입시 직전인 10~11월에 운영된다.

'독서 멘토링'도 새롭게 선보인다. 최근 청소년들의 문해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교과서를 넘어 인문·고전·철학까지 영역을 넓히기 위한 과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멘토링은 단순히 성적표 숫자를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8일 개통

장제로 교통량 분산... 편의성 개선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검단~드림로 연결도로'를 오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

이번 도로는 광역시도 52호선 일부 구간으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다.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됐다.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5.

1km에서 3.9km로 1.2km 줄고, 이동 시간도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인 장제로의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은 물론 계양구와 서울 서북부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 개통은 검단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라며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속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정근식, 예비후보 등록 서울교육감 재선 도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도전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기자회견에서 예비후보 등록 방침을 밝힌 뒤, 오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정 교육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천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현진 기자

운영기관에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 개발과 공공보건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가동한다.

도는 공모 절차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발굴하고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해 도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공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단은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를 투

입해 ▲경기도형 한의택돌봄 모델 구축 ▲한방 난임치료 근거기반 정책 고도화 ▲신규 한의약 공공사업 발굴 ▲정책 홍보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며, 경기도형 한의약 정책의 표준화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고도화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료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회복, 갱년기 관리까지 이어지는 여성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숙면도 자기관리’... 슬립테크·보조제 등 수면케어 시장 들쭉

‘수면 습관·용품·보조제’ 조사 응답자 85% “수면 관리에 관심”

KGC인삼공사 수면·스트레스 공략 hy 아쉬아간다 앞세운 ‘수면케어 쉽’ **종근당건강** 락티움·테아닌 ‘수면이지’



Chat GPT로 생성한 수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수면 보조제부터 숙면 용품, 슬립테크 기기, 기능성 식품까지 관련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이 동반 확대되는 모습이다.

잠이 ‘휴식’의 개념을 넘어 ‘관리의 대상’이자 ‘소비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수면 보조제부터 숙면 용품, 슬립테크 기기, 기능성 식품까지 관련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이 동반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대인의 수면 습관 및 수면용품·보조제 관련 U&A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5%가 평소 수면 관리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수면은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4.0%, ‘잠을 잘 자는 것이 곧 자기 관리’라는 인식도 90.9%에 달했다.

숙면을 위해 실천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 관리에 집중돼 있었다. 카페인 섭취

자제, 규칙적인 기상·취침 시간 유지, 낮잠 시간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효과가 가장 좋았던 방법 역시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와 카페인 조절, 낮잠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2030 세대의 ‘보조 수단’ 활용이다. ASMR 등 숙면 콘텐츠, 온열 안대·디퓨저 같은 보조 제품, 수면 관리 앱 사용 경험이 다른 연령층 대비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에는 기능성 원료를 앞세운 ‘수면 케어 식품’

까지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수면 관리가 개인의 생활 습관을 넘어 콘텐츠·제품·디지털 기기·식품이 결합된 라이프스타일 소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KGC인삼공사는 수면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더블 수면&스트레스케어’를 선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면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아쉬아간다 추출물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테아닌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아쉬아간다 추출물은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에 기록된 식물 유래 원료로, 회복성 수면 설문(RSQ-W) 지표 개선이 확인된 바 있다.

hy 역시 ‘수면케어 쉽’을 통해 아쉬아간다 추출물을 핵심 원료로 한 제품을 운영 중이며, 종근당건강은 우유 유래 개별인정형 원료 락티움(유단백 가수분해물)과 테아닌을 주원료로 한 ‘수면이지’를 판매하고 있다. 락티움과 테아닌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알려져 있다.

수면 보조제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다. 멜라토닌 등 수면 보조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6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섭취 경험은 29.5%에 그쳤다.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는 82.2%가 공감했지만, 장기 복용에 대한 우려(76.5%), 안전성에 대한 걱정(77.3%)이 동시에 나타나며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자연 성분 기반이라면 거부감이 적다’는 응답이

58.2%에 달해 향후 수면 보조제 및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는 효능보다 ‘안심 성분’과 ‘부담 없는 사용감’이 핵심 경쟁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슬립테크에 대한 수용도도 긍정적이다. ‘기술로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응답은 67.1%, ‘수면 관련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77.0%에 달했다. 특히 스마트워치와 앱으로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수용도는 2030 세대에서 6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면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관리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이른바 ‘수면의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숙면이 개인의 의지나 생활 습관을 넘어 제품과 서비스, 기술, 기능성 식품이 결합된 소비 영역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 자는 것이 곧 자기 관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면을 둘러싼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스탠브루 “야구장의 즐거움과 카페 문화 잇는다”

사직야구장에 68석 특화 매장 오픈 자동브루잉·1L 커피로 대기수요 대응 롯데자이언츠 협업 굿즈 등 마련



스탠브루 사직야구장점 외부 전경. /롯데GRS

롯데GRS의 브루잉 커피 전문 브랜드 스탠브루(STANBRU)가 부산 사직야구장에 ‘스탠브루 사직야구장점’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과 맞물린 이번 출점은 단순 매장 확대를 넘어, 시즌 유동과 지역 고정 수요가 공존하는 상권 특성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다.

사직야구장 일대는 경기 일정에 따라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대표 상권이다. 직장인, 가족 단위 관람객, 젊은층 팬들이 경기 전후로 카페와 음식점을 찾는

소비 패턴이 뚜렷하고, 비시즌에도 생활체육과 지역 행사로 집객이 이어진다. 스탠브루는 이러한 상권 흐름에 맞춰 ‘야구 관람 동선 속 카페’라는 포지셔닝을 시도했다.

약 41평, 68석 규모로 조성된 매장은

자동 브루잉 시스템을 도입해 휴경기 일 피크 시간에도 빠르게 커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비사이즈 1L 커피를 전면에 내세워 단체 관람객과 대기 수요를 동시에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매장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착용한 직원 응대와 함께, 구단 로고와 스탠브루 로고를 결합한 스트로우 픽과 컵홀더를 제공하는 등 야구 팬을 겨냥한 상권 특화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야구장의 현장감과 카페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의도다.

오픈 기념 이벤트도 마련됐다. 4월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SNS 인종 이벤트를 진행해 추첨을 통해 롯데자이언츠 유

니폼과 롯데리아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경기 일정에 따라 매장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관람객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스탠브루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창업 박람회에 참여해 브랜드 홍보와 예비 창업자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사직야구장은 시즌 유동 인구 변화와 지역 상권 수요가 동시에 나타나는 부산의 대표적 융합 상권”이라며 “단순 음료 판매를 넘어 야구장의 즐거움과 카페 문화가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국순당 ‘쌀막걸리’

업계 첫 500ml 캔 선택

트레이더스서 신제품 시음행사

국순당은 막걸리 업계 최초로 500ml 용량의 캔 제품인 ‘국순당 쌀막걸리 500ml 캔’ (사진) 제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국순당 쌀막걸리’ 제품은 기존 750ml 페트병, 350ml 캔에 이어 500ml 캔 제품까지 더해져 총 3종으로 라인업이 확대됐다. 새로 출시한 ‘국순당 쌀막걸리 500ml 캔’ 제품의 품질과 맛은 그대로이다. 국순당은 500ml 캔 막걸리를 알리기 위해 전국 트레이더스 전매장에서 2일부터 5일까지 및 9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총 8일간 신제품 시음행사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빠빠코’ 45주년 신규 패키지

소비자 아이디어 담아 한정 운영



롯데웰푸드는 올해 45주년을 맞은 아이스크림 브랜드 ‘빠빠코’ (사진)가 소비자 아이디어를 담은 신규 패키지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패키지에는 지난해 빠빠코 44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빠빠코 NEW LOOK 패키지 공모전’의 1등 당선작을 적용했다. 롯데웰푸드는 소비자의 참신한 시각을 더해 친숙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신규 패키지는 오는 8월 말까지 한정 운영된다.

빠빠코 NEW LOOK 패키지 공모전은 약 한 달의 응모 기간 총 902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롯데웰푸드는 접수된 작품 중 내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작을 선

정하고, 공식 SNS 등을 통해 소비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총 1만 1385명의 소비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3892표를 얻은 1위 후보작이 신규 패키지의 주인공이 됐다.

이 작품은 빠빠코와 함께한 추억을 축제의 장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빠빠코를 대표하는 고인돌 캐릭터들과 빠빠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빠빠코의 생일을 축하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당선자는 “빠빠코는 여름날 같증을 식혀주던 시원한 친구이자 달콤한 추억”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CJ온스타일, 상반기 최대 쇼핑행사 연다

‘컴온스타일’서 최대 50% 혜택

CJ온스타일이 3일부터 12일까지 상반기 최대 규모 쇼핑 행사 ‘컴온스타일’을 열고 역대급 혜택 총력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따나는 모든 것, 최대 50% 혜택’을 내세워 패션, 뷰티, 홈키친, 가전, 유아동, 식품 등 전 카테고리에 걸쳐 고객 체감 할인 폭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CJ온스타일 모바일 앱 회원이라면 누구나 행사 기간 동안 1일 1회 다운로드 가능한 ‘30% 할인 쿠폰(행사 상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테고리별 MD가 추천하는 100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컴온 초이스 텐텐텐’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 10일 동안 매일 10개 브랜드에 10%

카드 할인과 10% 적립금을 동시에 제공하며 사전 다운로드한 30% 할인 쿠폰까지 적용하면 최대 50%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프리미엄 조명 브랜드로 SNS에서 화제가 된 아르페미데, 럭셔리 뷰티 바비브라운, 프로틴 시리얼 헤이시리, 홈트레이닝 상품으로 인기인 오버더 등 각 카테고리별 인기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컴온스타일 기간에 맞춰 신규 론칭 브랜드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예술레저 분야 1위를 차지 중인 켄시믹스, 디자이너 브랜드 분크, 트렌디한 캐주얼 패션 세터, 스킨케어 대표 바이오던스, 캐리어·백팩 등 감각적인 트립웨어 로우로우 등은 문칭을 기념해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화점

외국인 대상 쇼핑페스타

스포츠·아웃도어 특화 행사

신세계백화점이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스포츠·아웃도어 특화 행사로 글로벌 수요 공략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2일까지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하는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K2, 피엘라렌, 휠라 등 61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외국인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최근 한 달간 신세계백화점의 스포츠·아웃도어 카테고리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리만코리아, 수입원료 대신 제주 클로렐라로 'K-뷰티' 완성

비자림 발굴 클로렐라 자체 배양 정방폭포 발견 균주 독자 개발도 루테인·비올라잔틴 등 소재 확보 이슈, 공급망 불안정성 문제 개선 韓 토종 원료로 글로벌 시장 진출



리만코리아가 새롭게 공개한 미세조류 '클로렐라'는 배양 수준에 따라 다른 색을 보인다.

국내 뷰티 시장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리만코리아는 제주 비자림 유래 미세조류를 기반으로 고기능성 소재 국산화에 나섰다. 연구, 재배, 생산 전반에서 'K뷰티' 가치 사슬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제주에서 얻은 천연 성분에 배양 기술을 더해 원료 내재화를 이뤘다고 있다.

지난 1일 제주 리만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리만코리아의 신 성장동력 '제주 클로렐라'가 공개됐다. 이번 발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합작한 연구 개발 기업 에스크랩스를 통해 10년 넘게 연구한 성과다.

클로렐라는 미세조류의 일종이다. 미세조류는 빛과 이산화탄소를 영양분으

로 바꾸는 광합성 생물로, 인체 내 항산화, 면역 증진 등을 돕는다. 리만코리아는 제주 비자림에서 발굴한 클로렐라를 자체 배양해 비올라잔틴, 루테인 등 기능성 성분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 정방폭포에서 발견해 번이 시킨 '클로렐라 sp.HS5' 균주 등을 독자 개발했다. 빛 없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증식하는 암배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농도 포도당을 추가 공급하

는 '페드 배치' 공법으로 바이오 매스 생산성 수치를 85g/L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연구 초기 25g/L 대비 3.4배 향상된 기록으로 높은 수준의 고밀도 배양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배양한 클로렐라에서 추출한 루테인은 인체적용시험 결과, 기존 마리골드 루테인 대비 체내 흡수율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 색소 밀도 유지 및 눈 건강 개선 효능도 입증됐다.

루테인뿐 아니라 '비올라잔틴' 역시 차세대 소재다. 리만코리아는 비올라잔틴 고생산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주름 개선 등 고기능성 화장품에 주력하고 있다.

에스크랩스 김희식 최고기술책임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포공장연구센터장)은 "미세조류는 나무보다 10배 이상 높은 광합성 효율을 가진 생물 자원이지만 상업적 대량 생산이 극히 까다로운 영역"이라며 "리만코리아의 독자 균주와 배양 기술은 균일한 고순도 성분을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루테인 원료인 마리골드는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 재배되어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중금속 오염 등을 비롯한 품질관리 이슈, 공급망 불안정성 등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리만코리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리만코리아는 이미 2024년 7

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세조류 추출물에 대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비고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눈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리만코리아는 제주 용암해수 단지 인근에 스마트팜 '리만팜'과 생산시설 '에스크베이시'를 운영하고 있다. 리만코리아의 기존 핵심 원료인 '자이언트 병풀'의 경우 100% 제주산이며 국내 산림청에 등록된 신제품이다.

리만코리아는 이러한 '기술 경영'을 강화해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 3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최근 스페인·칠레·아일랜드 등을 수출국으로 추가해 전 세계 15개 지역으로 입지를 넓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영재 리만코리아 대표는 "남의 것을 가져다 파는 유통 플랫폼에 머물지 않고 우리 땅 제주의 자원을 연구해 '한국 토종 원료'의 자생력을 꾸준히 키워 글로벌 시장 곳곳에 이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짐펜트라', 증량효과 유효성 입증

글로벌 임상 3상 사후 분석결과 국제학술지 '염증성 장질환' 게재



셀트리온 짐펜트라

셀트리온은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파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렘시마SC 미국 제품명)의 글로벌 임상 3상 사후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 학술지 '염증성 장질환(IBD)'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국제학술지 IBD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염증성 장질환 환자 지원 및 연구 재단인 '미국 크론병 및 대장염 재단'의 공식 저널이다. 해당 저널의 논문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는 관련 분야 상위 20% 수준으로,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연구 결과는 짐펜트라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02주간 진행된 사

후 분석 결과다. 치료 과정 중 짐펜트라 120mg 격주 유지 요법에서 반응 소실이 나타난 크론병(CD) 환자 및 궤양성 대장염(UC) 환자를 대상으로 용량을 240mg으로 증량했을 때의 임상적 유효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량을 증량한 CD 및 UC 환자의 80% 이상이 반응을 회복했으며, 그중 대부분의 환자가 증량

투여 후 8주 이내에 빠른 반응 회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조기 반응 회복을 보인 환자들은 장기 유효성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에서도 우호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증량 요법이 치료 지속성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짐펜트라의 용량 증량이 약물 반응 소실로 어려움을 겪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짐펜트라 증량 요법 유효성 결과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크론병 및 대장염 재단'의 공식 저널에 게재되며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웅제약 '스토보클로', 누적매출 118억

출시 약 10개월만의 성과 '메가 블록버스터'로 육성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공동 판매 중인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성분명:데노수맙)'가 누적 매출 118억 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의 국내 1호 바이오시밀러다. 2025년 3월 첫 출시됐으며, 지난 19일 출시 1주년을 맞았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스토보클로는 2025년 4분기까지 누적 매출 약 118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기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구간에 진입했다. 스토보클로는 데노수맙 시장에서 2025년 4분기 기준 점유율 약 14% 수준까지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연간누계 기준으로 약 7% 점유율을 확보하며 시장에 안

정적으로 안착했다. 출시일을 감안하면 약 10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주요 종합·대학병원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처방 규모를 확장해 스토보클로를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메가 블록버스터'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과거 오리지널 약제가 처음 급여를 받을 당시 20만 원을 상회하던 비용에 비해 스토보클로는 절반 수준인 약 10만 원 정도의 합리적인 약가로 출시됐다.

스토보클로의 주요 성분인 데노수맙은 약물 특성상 1회 주사로 6개월간 효과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보관 및 유통의 안정성도 대폭 향상됐다. 스토보클로는 제형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실온(최대 30°C)에서 최대 63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제품 대비 약 4배 길다.

/이세경 기자

도미노피자, '패트와 매트' 협업 캠페인

인기 캐릭터로 MZ 세대 공략 이달 공식 SNS서 콘텐츠 선배

도미노피자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 '패트와 매트'와 협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패트와 매트' IP와 협업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은 MZ세대와의 접점을 높이고자 계획된 것으로 '패트와 매트' IP가 MZ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에 주목해 진행하게 됐다.

패트와 매트는 1976년 처음 등장해 최근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로, 도미노피자는 이러한 캐릭터의 특징이 클래식 메뉴를 도미노피자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더해 재탄생시킨 더블 미트 할라

피노 피자와 그릴드 패티 치즈 버거 피자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더블 미트의 매트, 그릴드 패티의 패트로 짜여지며 제품명과 캐릭터 명이 잘 맞아 떨어지고, 캐릭터별 상징적인 색상(빨간색, 노란색) 역시 더블 미트 할라피노 피자의 빨간색, 그릴드 패티 치즈 버거 피자의 노란색과 찰떡궁합이라 판단해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

도미노피자는 '패트와 매트'와 협업 캠페인 일환으로 4월 한 달간 공식 SNS 채널에 '패트와 매트'의 피자 분점을 오픈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해프닝과 신메뉴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패트와 매트' 피자박스와 포스



도미노피자가 패트와 매트 협업을 전개한다. /도미노피자

터까지 제작하여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고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신원섭 기자 tree6834@

신세계인터 '비디비치', 日 공식 팝업스토어

오는 13일까지 도쿄 하라주쿠서 운영 경쟁력·영향력·성장 가능성 등 인정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토탈 뷰티 브랜드 비디비치(VIDIVICI)가 일본 도쿄에 첫 공식 팝업스토어를 열고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비디비치는 2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도쿄 하라주쿠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브랜딩 이후 일본에서 처음 진행되는 공식 오프라인 프로젝트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국 MCN 기업 레퍼리가 주최하는 '1% 셀렉트 스토어(SELECT STORE)' 행사의 일환으로 브랜드력, 제품 품질, SNS 영향력, 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별

된 브랜드만 참여한다. 비디비치는 행사 참여 브랜드로 선정된데 이어 'KYEA(Korea YouTuber's Excellence Awards)'를 수상했다. 이를 통해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에는 350명 이상의 한일 인플루언서와 50여 개 이상의 미디어가 참여할 예정이다. 비디비치는 이를 통해 현지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비디비치는 최근 '스킨 코어 뷰티(Skin Core Beauty)'를 콘셉트로 한 리브랜딩과 함께 올리브영과 온라인 채널 및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신원섭 기자

새로운 이야기, 변함없는 따뜻함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1

Always

24
Times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김하나 | 연출 정범철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조연출 박수연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극발전소301 | 예매처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유럽 소비자, '갤럭시 S26 울트라' 최고의 스마트폰 선정

삼성전자 7개국 소비자연맹지 평가
"모든 부분에서 훌륭, 단점이 없는 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울트라'가 유럽 주요 7개국 소비자연맹지 스마트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6 울트라'는 ▲영국 '위치' ▲프랑스 '크슈아지르' ▲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 ▲스페인 '오씨유' ▲포르투갈 '데코프로테스트' ▲벨기에 '테스트아차트' ▲스웨덴 '레드앤론'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소비자연맹지들이 꼽은 최고의 스마트폰에 선정됐다.

유럽 주요 국가의 소비자연맹지는 제품의 성능과 가격등을 전문가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 비영리 단체에서 발간해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에서는 각 소비자연맹지의 전문



지난달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26'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갤럭시 S26 울트라를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가들이 테스트한 제품 중 최고를 의미하는 'Best of Test' 어워드를 획득했다.

영국의 소비자연맹지 '위치'는 스마트폰 랭킹에 '갤럭시 S26 울트라'를 총점 87점의 1위로 발표하며, "모든 실험실 테스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며, 특히 새로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의 보안 성능을 높게 평가했다. 공동 2위는 85점을 받은 '갤럭시 S25 울트라'와 '갤럭시 S25+'가 선정되며 상위권을 갤럭시 스마트폰이 휩쓸었다.

프랑스의 소비자연맹지 '크슈아지르'도 '갤럭시 S26 울트라'를 17.0점으로 1위에 선정했고, "사진의 디테일이 뛰어

나고 색감이 생생하며 저조도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촬영된다"며 "수평고정 모드로 흔들림을 최소화한 동영상 또한 훌륭하다"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소비자연맹지 '알트로콘슈모'는 '갤럭시 S26 울트라'에 84점을 주며 '갤럭시 S25 울트라'와 공동 1위로 선정했다. 연맹지는 "약 51.5시간을 기록한 배터리 수명과 60W 유선 및 25W 무선 충전이 인상적이다"며 텍스트 설명만을 통해 이미지 편집이 가능한 포토 어시스트의 갤럭시 AI 기능도 호평했다.

스페인 소비자연맹지 '오씨유'는 '갤럭시 S26 울트라'를 "단점이 없는 폰"이라며, "뛰어난 내구성과 디스플레이 품질, 배터리 수명, 카메라 성능 등 모든 부분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84점으로 1위를 준 이유를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신한은행, 해외의료봉사단 본격 활동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봉사활동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이용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한화, '2026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 성료

한화그룹은 '2026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하동 진교초를 비롯해 서울, 수원, 대전, 논산, 나주 등 전국 6개 학교에 학교당 약 1억원을 지원했다. 정인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가운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그룹

아이오닉 6N '올해의 고성능 차' 수상

현대차 탐기어·왓 카 등 최고 평가
E-GMP 기반 상품 경쟁력 입증

현대차의 아이오닉 6N이 글로벌 시상식에서 고성능 부문 상을 받으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전용 전기차(EV)의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진행된 '2026 월드카 어워즈'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6N이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를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04년 출범한 월드카 어워즈는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며 매년 미국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월드카 어워즈 수상 부문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 ▲세계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등 6개다. 올해는 전 세계 33개국의 자동차 전문가 총 98명이 월드카 어워즈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해 후보 차량들을 시승한 뒤 투표를 거쳐 각 부문 올해의 자동차를 선정했다.

아이오닉 6N은 같은 날 영국의 자동차 전문지 '탐기어'가 주관하는 '2026 탐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진행된 '2026 월드카 어워즈'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6N이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수상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기어 전기차 어워즈'에서 '운전자를 위한 최고의 차'에 뽑혔다. 이보다 앞선 올해 1월에는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의 '2026 왓카 어워즈'에서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에 선정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차량 개발 과정에 참여한 모든 현대차 임직원에게 매우 뜻깊은 영예"라고 말했다. 이어 "뛰어난 디자인과 첨단 기술, 실생활 활용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현대차의 노력을 인정해준 심사위원단과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이조엔 대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카이젠 다이닝 그룹>

한식·일식 외식문화 확산 공로

미국 외식 기업 카이젠 다이닝 이조엔 대표가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카이젠 다이닝 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조엔 대표가 글로벌 외식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식과 일식 외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업 경영에 모범을 보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포상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정부와 경제계 주요 인사 및 유공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1991년 설립된 카이젠 다이닝 그룹은



이조엔 카이젠 다이닝 그룹 대표이사 이조엔 대표가 지난달 31일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카이젠 다이닝 그룹

"더 나음을 위한 변화"를 경영 철학으로 내세우고 글로벌 외식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일본 레스토랑 '가부키', 한식 레스토랑 '가번', 차킨 브랜드 '피쿠니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섬유패션정책연구원 서봉준 신임 이사장 취임

섬유패션정책연구원은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이사회'에서 서봉준 신임 이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이사장은 동림유화를 이끌며 섬유·화학소재 분야에서 기업 경영과 기술 기반 사업을 이끌어 왔다.

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산업 현장을 반영한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 김민수 인재개발원장 발탁

롯데는 김민수 전무(사진)를 신임 롯데 인재개발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신임 롯데인재개발원장은 25년 이상 HR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핵심 인재 육성 및 HR 모든 영역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신임 원장은 롯데 그룹이 도입 중인 직무기반 HR 중심의 인재 육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임직원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부음

▲오감합씨 별세, 장기우(동아일보 대전총청취재본부장)·장숙영·장지영(국방출판지원단)씨 모친상, 문정혜(리드앤텍 청주분평센터 원장)씨 시모상, 윤태식(에스제가복지센터 대표)·김진근(지투엘 대표)씨 장인상=2일 오전 8시55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043-269-7212

아모레퍼시픽, 'IF 디자인 어워드' 5개 본상

설화수 진설 벵크림 등 수상

아모레퍼시픽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6' 2개 부문에서 총 5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는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 ▲'설화수 진

설 벵크림' ▲'롱테이크 오드 퍼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지속가능 캠페인 '레스 플라스틱, 위아 판타스틱(LESS PLASTIC, WE ARE FANTASTIC)'과 체험형 전시 공간 '뷰티과학자의 집'이 수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코웨이,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3관왕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부문 1위

코웨이가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타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부문 1위를 석권했다.

2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각 부문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정수기

부문에선 21년 연속, 공기청정기·비데 부문은 22년 연속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다.

코웨이는 아이론 정수기 시리즈, 노블 공기청정기, 롤루 슬리믹 비데 등 혁신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국내 환경가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날씨

4월 3일 (금)
음력: 2월 16일

수도권 날씨
6 ~ 2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15 | 해질 / 18:56

연천 3/20, 동두천 4/20, 가평 2/21, 파주 3/19, 서울 6/21, 양평 4/21, 인천 6/18, 수원 6/20, 용인 6/20, 평택 4/21, 백령도 6/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소갈비살 패티로 쫄깃한 고기 식감 UP!

불갈비버거

단품 6,800원 세트 8,800원

DT매장
전용 패키지!



영양성분표

버거메뉴	총중량(g)	열량(kcal)	단백질(g)	나트륨(mg)	당류(g)	포화지방(g)
불갈비버거	182	467	19(35%)	870(44%)	13	10.0(67%)

세트메뉴 : 선택 디저트, 음료에 따라 영양성분 상이

버거세트메뉴	열량(kcal)
불갈비버거 세트	579 kcal ~ 1,264 kcal

알레르기 유발 안내

불갈비버거

달걀, 밀, 대두, 우유, 쇠고기

원산지

쇠고기(호주산)

LOTTERIA™

메뉴 구성에 따라 알레르기 성분이 다르므로, 각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 바랍니다. 각 제품은 원재료의 수급 상황에 따라 구성 성분 및 원산지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락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제공량 기준이며, 당사 표준 레시피에 따른 제품의 영양성분으로 실제 제공된 제품의 영양성분과 중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영양표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은 실험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금원과 신복위에 대해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양대 축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각각 '사후 구제'와 '사전 예방'이란 역할을 맡고 있다. 겉으로 보면 촘촘한 안전망 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이 오히려 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설계가 여전히 '단절적'이라는 점이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연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상황에 실패한 이용자는 미흡한 연계 시스템 속에 신복위로 이동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원 조건과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경험'을 준다.

'사후 대응 중심'의 구조도 한계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지

만, 이미 신용이 훼손된 이후에 작동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특히 최근 채무조정 이용자의 40% 안팎이 39세 이하 청년층이란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연체 이후가 아니라 연체 이전의 금융 환경에 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자산 축적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기존의 채무조정 중심 정책은 '늦은 처방'일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의 공급 방식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서금원의 상품은 금리 부담을 낮춰주지만, 여전히 '대출'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또 다른 부채를 제공하는 방식에 가깝다. 특히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나기 직전의 차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상환 여력이 취약한 계층에게는 문제를 이연시키는 효과에 그친다.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반영 부족도 문제다.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소득 변동성이 큰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의 소득 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의 '연

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서금원과 신복위를 단순히 역할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지원 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금융 상태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사전 예방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소득 기반 상환(Income-Contingent Repayment) 모델이나 일정 수준의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결국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은 '빚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빚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정책의 방향을 '구제'에서 '예방'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서민금융은 이름만 남은 안전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금원, 신복위의 '전시 행정', '쇼핑 정보'도 사라져야 한다. 성과 중심보다 홍보 중심이란 인상을 준다.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은 통치자와 정치인, 일반인에게 보여주기식 행보가 필요 없다. 기관장의 '사진 찍기' 반복과 홍보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대학만 바라보는 진로교육... 직업교육부터 살려야



이지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서울학생 진로·진학 지원 강화 계획'은 입시 불안과 사교육 의존이 커진 현실에 대응해 공교육의 진로·진학 지원 기능을 넓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로·진학 상담 인력을 늘리고, 고교학점제에 맞춘 진로 설계를 돕는 등 학교 안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분명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의 배경에는 대학 진학에 편중된 진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핀란드의 직업계고교 진학 비중이 40%대인 반면 한국은 10%대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이는 핀란드에서는 대학 외

진로가 실제 선택으로 작동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택이 대학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진로교육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교는 진로를 말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끝내 묻는 것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느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서울시교육청도 직업교육 경로를 넓히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서울학생 직업교육 계획(가칭)'도 마련 중이다.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찾아가 직업교육의 특성을 체험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방향은 맞다. 다만 단순 홍보나 체험 확대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 대학 진학에 편중된 구조를 바꾸려면 직업계고와 직업교육 경로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직업계고를 '차선책'

이 아니라 하나의 경쟁력 있는 경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존의 직업 서열이 더는 절대적이지 않다.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직업도 기술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유망 학과와 직종의 선호도도 빠르게 달라진다. 그래서 공교육은 학교나 학과 선택에 따른 특정 진로를 정답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변화 속에서 선택하고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한국 공교육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진로교육은 입시 상담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교육이어야 한다.

결국 진로교육을 살리는 일은 상담 인력을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대학 진학에 편중된 구조를 바꾸겠다는 문제의식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직업계고와 직업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분명한 진로 경로로 자리 잡아야 한다.

/lhj@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일 (음 2월 16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차분한 운기가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60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72년생** 부업에 도전해 보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4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49년생 그룹에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 **61년생** 평소와는 다른 애정표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3년생**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활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85년생** 본업에 신경을 쓰세요.



50년생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움직이세요. **62년생** 친구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4년생**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86년생** 차분함과 침착함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51년생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도록 하세요. **63년생** 바라는 것이 매우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7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세요. **87년생** 희망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52년생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기 쉬운 하루입니다. **64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76년생** 본인도 모르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88년생** 즐거운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53년생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65년생** 업무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77년생**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이성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89년생** 여행을 떠나면 좋습니다.



54년생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66년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78년생** 노력을 해보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90년생** 천천히 여유로운 자세로 일처리를 하세요.



55년생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67년생**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큰 행운이 있습니다. **79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56년생 자신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68년생** 뒤에서 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0년생**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92년생** 항상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57년생 화해를 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69년생** 음양의 화합으로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운입니다. **81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93년생**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58년생 안으로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70년생** 스스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82년생**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94년생** 들뜨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59년생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지금은 융통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3년생** 행동 가짐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95년생** 뒷사람에게서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인생의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놀이공원에서 가장 박진감 있고 스릴 넘치는 경험을 선사하는 롤러코스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청룡열차가 그 시조일 것이다. 리프트가 열차를 천천히 끌고 올라가다가 정상에서 위치에너지를 관성적으로 바꾸면서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레일이 360도로 도는 구간에선 기차가 거꾸로 돌기도 한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해 승객이 밖으로 튀어 나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보통 답력이 아니면 즐기기 어려운 놀이기구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노약자와 임산부, 너무 어린아이들이나 일정 키 이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놀이기구로서는 스릴 만점이지만, 롤러코스터의 특성을 인생의 굴곡에 비유하기도 한다.

천천히 일정한 속력으로 오르는 구간은 인생의 평탄한 시기로 보는 것이지만 정상에서 방향을 바꿔 갑자기 낙하하는 것이 정점에서 바닥을 향해 낙하하는 인생 굴곡을 표현하기에 딱 들어맞기 때문일 것이다. 유의해볼 것은, 저점을 찍어야 반등하는 원리처럼 인생사 역시 바닥을 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올라갈 시점이니 인생역전이란 말이 나온다. 새옹지마(塞翁之馬)나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롤러코스터와도 비유가 되는 이유이리라.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 재실패가 두려워 멈추거나 아니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은 중도에서 멈추는 일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생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과실을 딴 것이다.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놀이공원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시간과 노력 대비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이 보통의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7	6	2		9		
		4		1				8
1								
	7	8				1	5	
2								9
	6	4				7	3	
								3
8			5		9			
	5		2	8	7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레코드를 증가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1	6	2	8	7	9	9	8
2	2	9	6	8	9	1	7	8
8	8	9	9	7	1	2	6	2
2	8	2	8	1	6	7	9	9
6	7	8	9	2	9	8	1	2
9	9	1	7	2	8	8	2	6
9	9	7	8	6	8	2	2	1
8	2	2	1	9	7	6	8	9
1	6	8	2	9	2	9	8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소믈리에가 먼저 찾는 ‘마크 크레덴바이스’... 한식과 찰떡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9

일반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데 소믈리에들이 먼저 찾아 업장에 쟁여 놓는 와인들이 있다. 알자스 와인이 그렇다. 좋은 산도에서 오는 긴장감과 미네랄이 한식은 물론 일식 등 아시아권 음식과 밀당하듯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서다.

프랑스 알자스 와이너리 도멘 마크 크레덴바이스(Domaine Marc Kreydenweiss)의 와인메이커 앙투안 크레덴바이스(Antoine Kreydenweiss·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알자스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 리슬링도 어디서 재배됐는지에 따라 캐릭터가 각기 다르다”며 “마크 크레덴바이스 와인은 알자스의 다양한 테루아가 품종을 통해 잘 표현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앙투안은 마크 크레덴바이스의 13대 손이다.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겹살부터 김치찌개에 라면까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는 놀랐다. 마크 크레덴바이스 와인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프랑스 알자스 와이너리 도멘 마크 크레덴바이스의 와인메이커 앙투안 크레덴바이스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알자스와 크레덴바이스 와인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크 크레덴바이스는 한국에서 알자스 와인의 존재감이 거의 없던 2016년 미술랑 레스토랑에서 페어링 와인으로서 첫 선을 보였다. 음식과의 궁합이 좋다 보니 캐주얼 다이닝까지 와인을 공급해 달란 소믈리에들의 요청이 밀려들었다.

사실 수입사인 와이너(WINER)는 역시 이승훈 소믈리에가 설립한 곳이다. 한국소믈리에대회 2연패 우승자답게 알자스 와인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챘다.



도멘 마크 크레덴바이스의 와인. 레이블은 매년 다른 예술가들이 디자인한다. /안상미 기자

도멘은 18세기부터 포도를 재배해 온 가문이다. 와이너리로서 정체성을 구축한 것은 아버지가 와인 양조에 뛰어든 1971년이다. 알자스에서는 최초로 바이오다이닝 농법을 도입했고, 지금도 기계가 아닌 말이 포도밭을 일군다.

앙투안이 도멘을 맡아 와인을 양조한 것은 2008년부터다. 앙투안은 아버지가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빼대를 세우고 살을 붙였다.

앙투안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 하나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다. 마크 크레덴바이스 와인만의 짙짙함이 여기서 나온다.

그는 “마크 크레덴바이스 와인은 굉장히 에너지가 좋다고 할 만한 긴장도가 있다”며 “와인에 필요한 요소가 충분하다 싶으면 바로 수확에 들어가 같은 마을에서도 수확이 하루라도 더 빠르다”고 전했다.

발효과정에서 차이점은 두 가지다. 먼저 외부 효모가 아닌 자연 효모로 발효시키고, 리(Lee) 숙성을 길게 가져간다. 리는 발효가 끝나면 생기는 효모 양금 혹은 효모 찌꺼기를 말한다. 독특한 풍미와 질감으로 와인에 복합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이야 리 숙성을 늘리는 게 트렌드지만 2000년대만 해도 시설

도 그렇고 리 숙성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크 크레덴바이스는 가장 기본급인 와인도 2년은 리 상태로 숙성한다. 그랑크뤼 와인의 경우 2022년 빈티지가 아직도 병입을 하지 않은 리 숙성 상태다.

마크 크레덴바이스가 내추럴 와인이란 말이 알려져 있지만 방향성이 다소 다르다. 필요에 따라 아황산염도 쓴다. ‘내추럴’을 위해 와인의 맛이나 품질을 희생할 생각이 없다.

와인병의 레이블은 매년 다른 예술가들이 디자인한다. 레이블만 보면 어떤 빈티지인지 알 수가 있다.

마크 크레덴 와인은 품종이 테루아를 덮지 않는다. 테루아가 품종을 지배한다. 실제 같은 리슬링도 표현력이 다르다.

‘비벨스베르그 그랑크뤼 리슬링 라담 2021’과 ‘카스텔베르그 그랑크뤼 리슬링 2019’는 둘 다 리슬링 100%로 양조했다. 비벨스베르그가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생산해 잘 익은 과실미와 볼륨감이 느껴진다면 카스텔베르그는 검은 편암 토양에서 만들어 향신료 풍미와 구조감이 인상적이다. 숙성 잠재력은 30년 안팎에 달한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주말은 책과 함께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로 글로벌 화제작 7편 선배

‘국보·크라임101’ 등 장르·팬덤 뚜렷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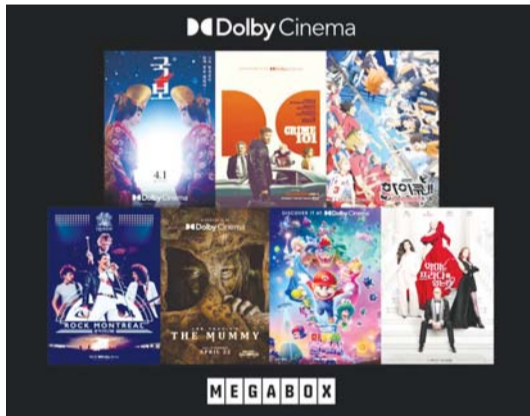
메가박스가 4월 한 달간 글로벌 화제작 7편을 프리미엄 상영관 ‘돌비 시네마’로 선배이며 극장가 수요 회복에 나선다. 콘텐츠 경쟁력과 상영 기술을 결합해 관객 체류 시간과 객단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라인업은 ‘국보’, ‘크라임101’, ‘극장관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 ‘퀸 락 몬트리올’, ‘리 크로닌의 미이라’, ‘슈퍼 마리오 갤럭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등 장르와 팬덤이 뚜렷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해당 작품들은 돌비의 HDR 영상 기술과 몰입형 음향 기술이 적용된 돌비 시네마 및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 13곳에서 상영된다.

1일 개봉하는 ‘국보’는 일본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실사 영화 흥행 기록을 경신한 작품이다. 화려한 무대 연출과 인물의 감정선을 고해상도 명암 대비로 구현해 프리미엄 포맷의 강점을 극대화한다. 8일에는 돈 윈슬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크라임101’이 관객을 만난다. 추격전 중심의 서사가 색감과 공간 음향 효과를 통해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15일 재개봉하는 ‘극장관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스포츠 애니메이션 특유의 속도감과 현장감을 강조한 작품으로, 봄철 관객층 유입을 노린다. 같은 날 상영되는 ‘퀸 락 몬트리올’은 1981년 퀸의 몬트리올 공연 실황을 담은 콘서트 필름으로, 공연 콘텐츠 수요를 겨냥했다.

22일에는 제임스 완이 제작에 참여한 ‘리 크로



닌의 미이라’가 개봉한다. 공포 장르 특유의 어두운 톤과 사운드 연출이 프리미엄 상영관에서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에는 게임 IP 기반 애니메이션 ‘슈퍼 마리오 갤럭시’와 패션 업계를 배경으로 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동시 개봉한다.

메가박스는 돌비 특별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엽서와 포스터 등 한정 굿즈를 선착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굿즈 수령 지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돌비 시네마는 전 세계 15개국, 290개 이상 지점에서 운영 중인 프리미엄 상영 포맷이다. 메가박스는 2020년 서울 코엑스점에 국내 1호관을 연 이후, 현재 전국 8개 돌비 시네마와 5개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을 운영하고 있다. 프리미엄 상영관 확대를 통해 관객 경험을 고도화하고, 침체된 극장 수요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I 시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인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이 됐다. 의료, 교육, 산업 등 전방위에서 활약하는 AI는 인류의 삶을 혁신하며 우리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화려한 기술이 역설적으로 ‘인류 진화의 종착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포용 언론인 포럼이 펴낸 ‘AI 휴먼 코드’(서교출판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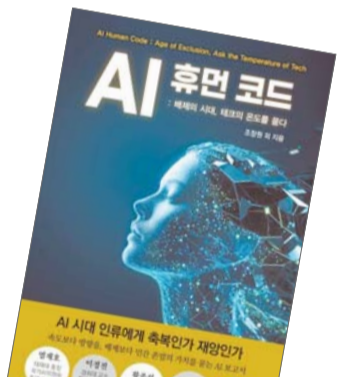
이 포럼은 산업·증권·금융·정치·사회·교육·국제·방송 분야를 두루 취재해온 현직 기자들이 결성한 언론인 연구 모임이다. 청와대 출입, 해외 특파원, 논설위원, 시사평론가, UX라이터, AI 리터러시 전문가 등 다양한 필드의 전문성을 결합해 1년여 간 토론하고 현장을 취재하며 전문가들의 통찰을 모았다.

“진짜 위기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유의 마비다. AI가 내놓는 매끈한 답변에 기대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고 만다.”(12쪽)

책은 기술의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위험을 냉정하게 해부한다. 저자들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만큼이나, 그로 인해 야기될 ‘새로운 불평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AI 활용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인 ‘AI D 디바이드’ 개념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으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AI가 진정한 인류의 진화를 위해 나아



AI 휴먼 코드

디지털포용 언론인 포럼 지음/서교출판사

가야 할 방향으로 효율보다 ‘존엄’을, 배제보다 ‘포용’을 제시한다. 기술이 윤리와 동행할 때, AI는 비로소 위험의 대상이 아닌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다.

책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와 산업 등 AI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았다.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술의 속도에 매몰되기보다, 인간다운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감과 소통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기술과 윤리가 함께 갈 때, 비로소 AI는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301쪽)

/김승호 기자 bada@



▲트럼프 순 지지율 -23%P 참사...바이든 최저치와 ‘동률’ /사진 뉴스스
▲에어차이나 등 中 주요 항공사도 유류할증료 인상

▲“독일, 이란발 고유가에 주유소 하루 1회 이상 가격 인상 금지”
▲中 전문가 “트럼프 나토 탈퇴 언급은 압박용 가능성”

▲“우리 땅에서 나가라” UAE, 이란인 비자 취소 초강수...기름값 또 오르나
▲핵통제 없는 세상, 中 쓰촨성에 대규모 핵시설 확장...‘사이트 906’



속면도 관리
슬림테크·보조제 등
수면케어 시장 확장
L1



Life

리만코리아
'제주 클로렐라'로
소재 국산화
L2



곡선형 보행로와 수목이 어우러진 '윈드 라이브러리 가든'. 정원 한편에는 책을 읽다 쉬는 모습의 장 줄리앙 작품이 설치돼 자연 속에서 사색과 여유를 즐기는 정원의 콘셉트를 완성했다.

예술과 자연이 만든 '명품 풍경'... 진주 품은 정원 거닐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래미안 원페를라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서울 방배동의 조용한 주거지 사이로 '래미안 원페를라'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낸다. 복잡한 도심에서 한 발 물러난 곳에 3개 단지가 자리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한 이곳은 지난해 진행된 청약에서 1순위 평균 경쟁률 152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천 등 녹지 공간이 가까워 도심 속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방배초·방일초·서래초 등 여러 학교가 반경 1km 내에 있으며 반포 학원가 접근성도 좋아 교육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단지명 '원페를라'를 해석하면 '단 하나의 진주'다. 진주와 같이 희소한 명품 주거 단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라 '진주(Perla)'를 콘셉트로 고급스러운 조경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전통 조경 방식 차경(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주변 풍경을 경관의 소재로 화용하는 기법)을 적용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아 2026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공간·건축 부문에서는 외관 디자인·조경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3단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윈드 라이브러리 가든'이 보인다. 작은도서관 앞에 자리한 쉼의 정원으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머무는 곳이다. 곡선형 보행로를 따라 걷다 보면 수목과 수경 요소가 어우러진다. 정원 끝에는 나무 사이사이의 바람결을 담은 2층 티하우스가

학군, 녹지 등 인프라 풍부한 역세권 단지 진주 콘셉트로 자연과 어우러진 조경 조성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조경부문 본상

단지 곳곳에 장 줄리앙 예술작품 전시 도서관 앞 심터엔 수목·수경요소로 꾸며 제주도 옮겨놓은 듯한 현무암·팽나무숲 자연·예술 입체적으로 풀어낸 갤러리도

있다. 원형 구조가 직선적인 건물과 대비를 이루며 부드러운 공간감을 만든다. 정원 콘셉트에 걸맞게 책을 보다 쉬는 모습의 장 줄리앙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책과 자연, 바람이 어우러진 곳에서 사색과 여유를 즐기기에 좋다.

2단지 커뮤니티 시설 앞에는 '펠 라이트 가든'이 조성돼 있다. 차분한 분위기의 휴식 정원이다. 정원의 중심에는 고개를 한참 들어야 할 만큼 커다란 소나무가 자리한다. 수형이 풍성하게 퍼진 소나무는 대단지의 규모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소나무를 둘러싼 수경시설은 물줄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설계했다.

'펠 라이트'라는 이름처럼 햇빛이 닿아 반짝이는 물방울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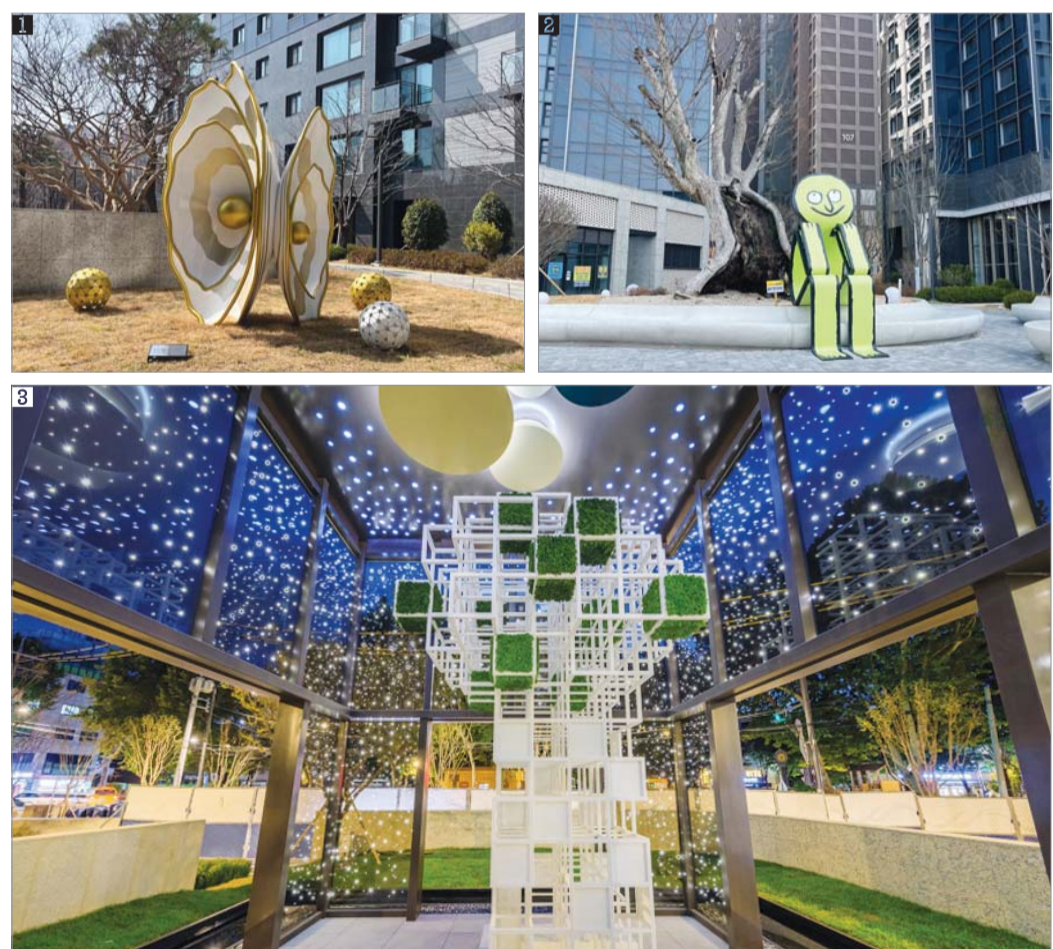
펠 라이트 가든을 지나면 자연의 흐름을 강조한 '블록 스트림 가든'으로 이어진다. 도심 속 계곡을 모티브로 조성한 공간이다. 석재를 층층이 쌓아 만든 블록형 구조 위로 물이 흐르도록 해 자연스러운 수경 경관을 구현했다.

천천히 단지를 거닐다 보면 제주도를 옮겨놓은 듯한 곳이 나타난다. '풍낭 풍당 안개가 내린 숲'이다. 풍낭은 팽나무를 부르는 제주 방언이다. 바람과 햇살이 스며드는 산책길은 제주에서 온 팽나무가 함께한다. 중앙에는 웅장한 느티나무가 서 있어 공간의 중심을 잡는다. 현무암과 자갈, 이끼 식재로 제주도 자연 환경을 구현해 섬의 고요한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단지 한편에는 '네이처 리트리트(Nature Retreat)'공간이 마련돼 있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 기존의 식생과 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목재 데크와 라운지 체어가 놓인 휴식 공간은 산 속 리조트에 온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래미안 원페를라의 조경 철학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다.

그린 아트 갤러리는 자연과 예술, 그리고 '진주'라는 콘셉트를 입체적으로 풀어낸 공간이다. 소나무와 조형물, 타워형 티하우스가 어우러지며 단지 한가운데 작은 전시관을 선보인다. 내부는 격자 구조와 식생, 등근 조형물이 결합돼 하나의 설치미술처럼 연출했다.

1단지 출구에는 상징목 느티나무 아래 장 줄리앙의 '페이퍼 피플'이 앉아 있다. 장난스러운 표정의 작품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목과 조화를 이루며 공간에 여유를 더한다. 페이퍼 피플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단지를 오가는 입주민을 따뜻하게 배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1 래미안 원페를라 내 조형물 '자연의 울림' 2 느티나무와 장 줄리앙의 '페이퍼 피플' 3 그린아트갤러리 티하우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슬로 스타터'는 잊어라... '투자 효과' 보는 KT, 개막 4연승 질주 /사진 뉴스시스
▲마운드에도 '슈퍼 루키' 출격 대기... 박준현·양우진도 실전 대비 담금질

▲굳은 표정의 홍명보 감독, 2연패 후 귀국... "보안할 점 확인했다"
▲프로농구 KCC, 갈 길 바쁜 SK 잡고 6강 PO '청신호'

▲오수민, 오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첫날 7언더파 공동 선두
▲'활동 중단' 타이거 우즈, 2027년 라이더컵 단장도 안 맡는다